

2004년 2월

교육학석사(국어)학위논문

‘-’의 소실과 방언 분화

 조선대학교



100261307 2004-02-18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이 지 은

‘·’의 소실과 방언 분화

The Dephonologization of ‘·’ and
The Differentiation of Korean Dialect

2004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이 지 은

‘.’의 소실과 방언 분화

지도교수 강 희 숙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국어)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3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이 지 은

이지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 성 민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강 욱 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강 희 숙 

2003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표목차	iii
ABSTRACT	iv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사 및 문제 제기	1
3. 연구 대상 및 방법	4
II. ‘-’의 소실과 방언 연구	7
1. 중부 방언	7
1) 비어두 음절	7
2) 어두 음절	11
2. 경상도 방언	15
1) 비어두 음절	15
2) 어두 음절	18
3. 전라도 방언	21
1) 비어두 음절	21
2) 어두 음절	23
4. 충청도 방언	27
1) 비어두 음절	27
2) 어두 음절	28
5. 함경도 방언	28
1) 비어두 음절	29
2) 어두 음절	30
6. 평안도 방언	32
1) 비어두 음절	32

2) 어두 음절	34
7. 제주도 방언	36
1) 비어두 음절	36
2) 어두 음절	38
Ⅲ. ‘·’의 소실과 방언 분화 양상	44
1. ‘· > ㅓ’ 형의 분포	44
1) 원순모음화에 의한 ‘· > ㅓ’ 형의 분포	44
2) 동화 작용에 의한 ‘· > ㅓ’ 형의 분포	47
2. 모음 체계 변화로 인한 ‘· > ㅓ’ 형의 분포	48
3. 비어두 음절에서 ‘· > ㅓ’ 형의 분포	50
4. 과도기적 변화	52
Ⅳ. 결론	53
참고문헌	55

표 목 차

<표 1>	6
<표 2>	46
<표 3>	49
<표 4>	51

ABSTRACT

The Dephonologization of ‘·’ and The Differentiation of Korean Dialect

Ji-Eun Lee

Advisor : Prof. Hui-Suk Kang(ph. D)

Major in Korea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Vowel, ‘·’, had been one of important letter among 28 letters in 15th century when the Korean Alphabet, Hangeul, had been originated. However, ‘·’ began to lose its function as phoneme by 18th century. Now a days it’s trace can be found only in Jeju dialect it has been alternated in standard language.

Till now, there were a great number of studies about the phonetic value, the time, the reasons and the phases for vanishing. But, most of the study was limited in Jungbu dialect. And also, there was important weakness in those studies as following : there are considerable differences between the aspect of the altern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dialect that has ‘·’ in the middle ages literatures and that of the standard language.

Therefore, we can’t help having interest in many facts connected with ‘·’ and taking a great interest in the aspect of transformation of ‘·’ in modern dialect.

In this study, the phases of the historical changes of the dialect that had ‘·’ was studied and the difference was compared with that of standard language.

And also, what kind of characters the modern dialect had was examined, after going through many historical changes and where they distributed.

Vowel ‘·’ has become extinct completely, passing two distinguishable gradations: ‘·’ joined each different vowel in initial and non-initial syllables. Especially, ‘·’ joined ‘—’ in non-initial syllable. When we put some marks showed in the literatures and the testimonies of many contemporary scholars together, we can draw a deduction that it was about middle 18 century when ‘·’ has vanished absolutely in the vowel system after going through the second stage: ‘· > ㅜ’

Undoubtedly, various change of ‘·’ are showed, above and beyond these two changes. We can discover some phonological facts, examining the historical change of the ‘·’ appeared in other dialects.

First, ‘·’ change into ‘ㅜ’. It is round-vowelization with a labial and assimilation with a contiguity vowel ‘ㅜ’.

We can find out that ‘·’ change into ‘ㅜ’ extensively. Namely, in the southern inland area as well as the coastal part, and in the great northern part, this phenomenon is showed. Therefore, it is certain that this round-vowelization is the important change that happened throughout the country. Of course, Chonnam, Gyungnam and the inland area of Hambuk is the center of this change. However, we can find out that this change occurred in the inland area of Gyungbuk, Pyungando, Hamgyungdo, Hwanghaedo , exercising its great influence.

Besides, ‘·’ change into ‘ㅜ’ when it is next to the vowel ‘ㅜ’. It is explained assimilation of a vowel. It only have an effect on Pyungando, Jeju dialect.

Next, ‘·’ trasformed ‘ㅜ’, showing signs of decadence, after the latter half of 18century. In some vocabulary, ‘·’ adhered to its position, without affecting the change, ‘· > ㅜ’. Finally, ‘·’ would be transferred to ‘ㅜ’ that adjacent to

that. This means that ‘ㅓ’ was back-vowelized. This phonological phenomenon is usually showed in the dialect of the Chungchongdo and partly appeared a northern part of Chonlado, Gyungnam and Pyungando. Also ‘ㅓ’ coexists with ‘ㅑ’ in Jeju dialect in non-initial. Therefore it could be told ‘ㅓ’ change into ‘ㅑ’ in mordern Jeju dialect in non-initial.

Third, ‘ㅓ’ trasformed ‘ㅑ’, in non-initial. In 16th century on Korean history, the change, ‘ㅓ > ㅑ’ didn’t extend to a dialect. After it took part in the second stage on the modern. This phonological phenomenon is usually showed in the dialect of the Gyungsangdo, Chonlado in other words, southern area.

Fourth, ‘ㅓ’ of a transitional phonological phenomenon in initial syllables are ‘흙’ and ‘소매’. These changed differently with the second stage change: ‘ㅓ > ㅑ’. Exactly, it is significant that the first change in initial syllables ‘ㅓ’. But these two words admit of no exceptions on the Hamgyungdo dialect, an isolating language.

I. 서론

1. 연구 목적

모음 ‘·’는 15세기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음운의 자격을 가지고 널리 쓰였었다. 그러나 ‘·’는 그 후 일정한 동요를 보이다가 18세기부터는 음운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었으며, 표기 또한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공포 이후에 완전히 폐기되었다. 다만, 오늘날 제주도 방언에서 ‘·’ 모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고, 표준어와 그 밖의 방언에서는 다른 모음으로 합류되었다.

지금까지 ‘·’는 그 음가, 소실 시기 및 단계, 변화 양상, 그리고 소실 원인 등에 대하여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¹⁾ 하지만 그것은 중부 방언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즉, 중부 방언에 대한 ‘·’의 변화 양상은 매우 자세히 밝혀진 바 있으나 여타 방언에 대한 통시적인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중세 문헌에 ‘·’를 지니고 있었던 어휘들의 방언에서의 변화 및 그 분화 양상을 보면 표준어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오늘날 방언에서의 ‘·’의 상이한 변화 양상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역사적으로 ‘·’를 지니고 있었던 방언 어휘들의 통시적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고, 표준어의 그것들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통시적 변화를 거친 방언 어휘의 공시적 형태들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사 및 문제 제기

‘·’에 대한 연구는 해방 후 모음 연구사의 출발이자 중심이었다. 즉 해방 후부터

1) 대표적인 것으로, 최현배(1948), 『한글갈』; 이승녕(1949), 『국어음운론연구 제1집 ‘·’음고』; 허웅(1958), 『국어음운론』; 이기문(1959), 『16세기국어의 연구』 등이 있다.

지금까지 국어 모음 체계를 둘러싼 문제들에 있어 ‘·’에 대한 여러 사실들이 연구 과제의 중심을 이루어 온 것이다.

‘·’에 대한 연구는 그 음가 규명을 시작으로 이루어졌다. ‘·’의 음가 연구는 <훈민정음 해례 제자해>의 해석을 토대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나타난 ‘·’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舌縮而聲深, ㄱ與 · 同而 口蹙, ㆁ與 · 同而口張

<훈민정음 해례 제자해>에 사용된 용어, 즉 혀에 대한 ‘설축(舌縮), 설소축(舌小縮), 설불축(舌不縮)’, 입에 대한 ‘구장(口張), 구축(口蹙)’ 등은 학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랐다. ‘설축(舌縮), 설소축(舌小縮), 설불축(舌不縮)’의 해석에는 ‘후설, 중설, 전설’을 가리킨다는 견해와 ‘설축(舌縮)’은 후설 저모음, ‘설불축(舌不縮)’은 전설 고모음, ‘설소축(舌小縮)’은 그 중간 단계를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다. ‘구장(口張), 구축(口蹙)’은 ‘장순(張唇), 원순(圓唇)’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개구도(開口度의) 대소를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어 왔다.

이승녕(1947)은 ‘축(縮)’을 혀가 오므라지는가 펴지는가 하는 ‘설(舌)’의 형태로, ‘성(聲)’의 ‘심천(深淺)’은 발음을 청취할 때의 인상으로, ‘장(張)’과 ‘축(蹙)’은 개구도 또는 원순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훈민정음 해례 제자해>에 규정된 용어에 대한 본격적인 해석이며, 이것을 토대로 ‘·’가 ‘ㄱ’와 ‘ㆁ’의 중간음임을 주장하였다.

허웅(1958)은 ‘축(縮)’을 혀의 위치와 높이를 모두 포괄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설축(舌縮)’으로 기술된 ‘·’를 후설 저모음으로 보았다. 또 ‘성심(聲深)’은 청각 인상에 관한 설명이라고 하였다. ‘·’음의 입술의 모양은 ‘ㆁ’와 ‘ㄱ’의 중간쯤인 것으로 파악하고, 제주도 방언의 ‘·’와 유사하다고 보았다.

이기문(1968)에서는 12세기 자료인 <계림유사>를 통해 볼 때 국어의 ‘·’는 [o] 또는 [a]로 전사되므로, [o] 음과 가까운 위치에서 나는 [ɔ]로 추정하였다.

‘·’의 소실 단계 및 변화 양상에 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대차를 보이며 2단계로 나타났음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의 2단계 변화 모습에 대한 설명은 이송녕(1940)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즉 ‘·’는 어두 음절에서 ‘· > ㅏ’, 비어두 음절에서 ‘· > ㅑ’로 변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에 순음성을 가하면 ‘ㄱ’가 되고, ‘·’에서 기능을 약화시키면 ‘ㅡ’가 되며, 어두 음절에서는 자생적으로 ‘ㅏ’가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김완진(1963)은 ‘· > ㅏ’, ‘· > ㅑ’의 변화 차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고 파악하고, 이송녕(1940)의 ‘· > ㅑ’, ‘· > ㅏ’에 나타나는 모음 변화는 시대차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음의 소실 시기와 원인에 관한 연구로 최현배(1959), 김완진(1963), 이기문(1969), 이송녕(1977)을 들 수 있다. 특히 소실 시기에 관해 이송녕(1977)은 오늘날 언중이 ‘외’와 ‘웨’를 같은 발음으로 내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듯이 17세기에 도 ‘·’는 이미 소실되어 ‘ㅏ’로 발음하였으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고 종전의 주장에 따라 ‘·’의 소실이 17세기 전기에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의 소실 원인으로 ‘·’의 불안정성과 함께 모음 추이설이 등장하게 된다. 이기문(1969)은 ‘ㅏ’가 중설 쪽으로 움직여 모음 추이가 일어났고, ‘·’는 그 연쇄의 끝에서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소실한 것이라고 보았다.

지금까지 검토한 ‘·’의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우리는 ‘·’의 음가, 소실 단계 및 변화 양상, 소실 시기와 원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에 도달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중부 방언에 대한 연구로 ‘·’의 변화 양상이 매우 자세히 밝혀진 바 있으나 여타 방언의 경우, 그것에 대한 통시적인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국어 방언 연구는 일본인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특히 ‘·’에 관해서는 최초로 河野六郎(1945)에서 ‘·’의 음가와 분포 상태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시기 내 국인 학자의 연구는 자료 수집을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방종현(1947)에서 제주도 방언의 ‘·’에 대한 자료로 ‘말(馬), 땀(汗)’ 등을 포함한 12개의 어휘를 채록하였다.

국어 각 방언에서의 ‘·’의 변화에 관해서는, 제주도 방언에 중세 국어 문헌어의

‘·’에 대응하는 모음이 존재한다는 것이 보고(小倉進平, 1924)된 이래로 지금까지 이 방언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완진(1957: 118)에서는 제주도 방언에 나타나는 일본어 차용어를 살펴보면서 ‘·’에 관해 논의하고 있으며, 이기문(1977: 184)에도 “오늘날 일반적으로 어두 음절에 있어서 중세 국어와 제주도 방언의 ‘·’가 규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고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그 밖에 방언에서의 ‘·’에 관한 연구로 경상도 방언은 최명옥(1982: 31-36)와 백두현(1989: 62-86), 전라도 방언은 최전승(1986: 109-114)과 이기갑(1986: 56-60), 함경도 방언은 박충구(1991: 209-212), 평안도 방언은 최임식(1984: 9-22)과 최명옥(1987: 70-73)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방언에 관한 위의 연구들은 각 방언에 관한 개별적인 연구이며, ‘·’의 연구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의 전반적인 연구 및 공시적 음운 변화와 관련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구되어 온 ‘·’의 통시적 변화에 대한 통합적인 비교·검토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이들 방언의 공시적 어휘 형태를 살펴 전국적인 분포 양상으로 종합해 내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의 변화는 2 단계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제1 단계는 비어두 음절에서 ‘· > ㅡ’의 변화를 겪고, 제2 단계는 어두 음절에서 대체로 ‘· > ㅏ’의 형태로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기문, 1972: 117-122).

그런데 ‘·’의 비음운화가 모음 체계와 연계성을 지니되 방언에 따라 조금씩 양상을 달리했으리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까지 통설화 되어온 ‘·’의 변화 양상이 모든 방언에까지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각 방언의 총체가 곧 국어의 실제라는 견지에서 보면 모음 ‘·’의 변화 양상은 각 방언사적 기술이 선행되지 않은 현재에 단정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먼저 중부 방언을 중심으로 한 ‘·’의 일반적인 통시적 변화를 살펴보고, 기타 방언에서 나타나는 ‘·’의 특이한 변화 양상을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방언에 대해서는 ‘·’의 비음운화에 대해 특징적인 점을 보여주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함경도, 평안도 및 제주도 방언을 주로 살펴보겠다. 이러한 검토 이후에 우리는 ‘·’의 통시적 변화에 음운론적인 해석을 내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음운 변화 양상이 여타 방언에 어떻게 분포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각각의 방언 어휘는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과거의 문헌과 20세기 이후 조사된 방언 자료집에서 뽑을 수 있다. 방언자료집은 일차적으로 각 지역 방언을 현지 조사하여 출판된 것을 이용하기로 한다. 이용된 방언자료집은 다음과 같다.

김병제(1995), 『방언사전』, 한국문화사.

김영배(1997), 『평안방언사전(자료편)』, 태학사.

김이협(1981), 『평북방언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기갑, 고평모, 기세관, 정세문, 송하진 공편(1998), 『전남방언사전』, 태학사.

이상규(2000), 『경북방언사전』, 태학사.

현평호(1985), 『제주도방언연구(자료편)』, 태학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 『한국방언자료집, 전라북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 『한국방언자료집, 충청북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0), 『한국방언자료집, 충청남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방언자료집, 전라남도편』.

이런 자료집 이외에도 연구 논저들에 기술된 관련 내용을 부분적으로 참조하였다.

이 논문에 인용된 문헌 자료와 그 약호는 다음과 같다.

<표 1> 출전 약호(가나다 순)

문헌명(간행연도)	약호	문헌명(간행연도)	약호
家禮諺解(1632)	<가례>	釋譜詳節重刊本(1495)	<석중>
敬信錄諺解(1796)	<경신>	世宗御製訓民正音(1458)	<세훈민>
救急簡易方諺解(1489)	<구간>	小學諺解(1586)	<소해>
金剛經三家解(1482)	<금삼>	續三綱行實圖(1514)	<속삼강>
楞嚴經諺解(1461)	<능해>	新增類合(1576)	<신합>
東國新續三綱行實圖(1617)	<동신속삼강>	譯語類解(1690)	<역해>
杜詩諺解重刊本(1632)	<두중>	五倫行實圖(1797)	<오륜>
杜詩諺解初刊本(1481)	<두초>	龍飛御天歌(1447)	<용가>
蒙山法語諺解(1472)	<몽산>	月印千江之曲(1447)	<월인>
朴通事諺解(1677)	<박해>	月印釋譜(1459)	<월석>
翻譯老乞大(1547)	<번노>	月印釋譜重刊本(1568)	<월석중>
翻譯朴通事(1547)	<번박>	字恤典則(1783)	<자휼>
翻譯小學(1500)	<번소>	漢清文鑑(1779)	<한청>
四聲通解(1614)	<사해>	訓蒙字會(1527)	<훈몽>
三綱行實圖(1481)	<삼강>	訓民正音(1446)	<훈정>
釋譜詳節(1477)	<석보>		

또한 영조 초기에 쏟아져 나온 윤음²⁾도 보수적인 면이 있지만 언해가 붙어 있어 우리말 연구의 좋은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여기에 인용된 윤음은 다음과 같다.

- a. 京畿大小民人等綸音(1782)
- b. 賜畿湖別眼資綸音(1784)
- c. 楊洲抱川父老民人等書(1792)
- d. 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響儀式鄉約條例綸音(1795)
- e. 汶川邑父老民人書(1792)

2) 윤음은 임금께서 신민에게 내리어 가르치는 조치으로 그 뜻의 철저한 보급을 꾀하기 위해 대개는 다 언해를 붙였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말 연구의 한 좋은 거리가 된다.

II. ‘·’의 소실과 방언 연구

1. 중부 방언

‘·’음이 언제 동요되기 시작하여 언제 완전히 없어졌는가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결과로 인해 대체로 16세기에 동요되기 시작하여 17세기 또는 18세기에 없어졌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³⁾ 하나의 음이 언제부터 어떤 특수한 과정을 거쳐 변화하여 갔느냐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음운사적 관점에서 볼 때 가치 있는 일일 것이며, 특히 이 ‘·’음의 소실 과정은 매우 특이한 것이어서 그러한 과정의 연구가 다른 어느 경우에 있어서보다도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음은 분명히 구별되는 두 위치에서 연대적으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소실되었다. 단적으로 말하면 모음 ‘·’의 소실, 정확히 말하면 그 다른 모음에의 합류는 분명히 구별되는 두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이 두 단계는 비어두 음절과 어두 음절에서 각각 다른 모음과 합류하였음이 특징이다(이승녕 1954: 453-514).

1) 비어두 음절

‘·’의 제1단계 소실에 관해서 먼저 15세기 자료를 검토하여 이미 이 시기에 이런 발달의 싹이 텃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15세기 문헌의 ‘·’음의 동요를 보여주는 예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사용되는 ‘·’의 자료들은 남광우(1960)의 <고어사전>과 유창돈(1964)의 <이조어사전>을 이용한 것이다.

(1) 노룩 > 노로 : 노로 爲 獐 <훈정>

먼뎡 > 먼뎡 : 먼뎡 胡教를 求하시느니 <월석 2:69>

뵤ᄃ로 > 뵤고로 : 뵤고로도 노하드리디 아니흐며 <몽산 64>

3) 최현배 선생은 선조 시대부터 ‘·’음의 음가가 없어지기 시작하여 영정시대에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고, 이승녕 선생은 훈몽자회 시대에 이미 ‘·’음은 동요하기 시작하여 대체로 17세기에 완전 소실되었다고 하였다. 허웅 선생의 결론은 최현배 선생의 것과 일치하고 있다.

- 나ㄱ내 > 나그내 : 또 물근 ㄱㄹ미 나그내 시르물 스로미 잇도다 <두초 7:2>
 그더 > 그되 : 이제 그되는 모습 슬푸물 아나 <두초 22:55>
 선비 > 선피 : 세상엿 선피는 해빠덧느니 <두초 21:13>
 조소로이 > 조소로이 : 尙陽혼 땃부리 더운 더 어두물 조소로이 너기고 <두초 9:113>
 가ㄱ기 > 가그기 : 가그기 브레 띄면 즉재 주그리라 <구간 1:84>

첫 예의 ‘노로’는 16세기 말의 문헌에서도 보이는 것으로, 어두 음절 ‘ㄱ’의 영향으로 비어두 음절의 ‘·’가 ‘ㄱ’로 되었다. ‘먼 되’의 ‘되’는 일반적인 ‘되’(處)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것이 이미 15세기 중엽에 존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두시언해초간본>(杜詩諺解初刊本, 1481)에는 15세기 중엽의 형태인 ‘나ㄱ내’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언제나 ‘나그내’로 나타나며, 역시 ‘그더’, ‘선비’는 희귀하고 ‘그되’, ‘선피’가 일반적이다. 우리는 위의 예로써 비어두 음절의 ‘·’의 변화가 실상 15세기부터 일어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16세기 자료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우선 명사와 동사 어간에 있어서 ‘·’의 변화를 보면, 비어두 음절에서 상당히 많은 예에서 ‘·’가 ‘一’로 변하였음을 볼 수 있다. 먼저 <번역박통사>(翻譯朴通事, 1547)와 <소학언해>(小學諺解, 1586)의 예를 든다. 참고로 15세기 문헌의 형태도 병기한다.

- (2) 다으나(打) > 다오다 : 저히야 공부드려 나오게 흐라 <번박 상:10>
 헌더 > 헌되 : 아므란 헌된 동 물래라 <번박 상:13>
 모든 > 모든 : 모든 벌들히 일후물 다 씨 창흐라 가라 <번박 상:24>
 도즈흐다 > 도죽흐다 : 혼중이 늑미 겨지블 ㄱ마니 도죽흐야 업노라 <번박 상:35>
 선비 > 선피 : 선피형님 네 나를 혼 당 벌내논 글월 씨 다고려 <번박 상:60>
 기르마 > 기르마 : 뵈로 기르마와 석술 팔다니라 <소해 5:54>
 다몬 > 다문 : 다문 내 말을 의지흐야 흐라 <소해 6:40>

이 예들을 통해 비어두 음절에서 ‘·’음이 모두 ‘一’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문헌들에서는 ‘기르마’, ‘다문’보다는 ‘기르마’, ‘다몬’이 더 자주 쓰이고 있어서,

비어두 음절에 ‘·’음을 가지고 있는 예에 비해 희소하다. 그러나 이것은 비어두 음절에서의 ‘·’의 소실을 입증해 주는 중요한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 <번역소학>(翻譯小學, 1500)을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은 예를 더 찾아낼 수가 있다.

- (3) 가비아온 > 가비아온 : 가비아온 들들이 보드라운 풀에 블터슌 그터니 <번소 9:63>
- 가스멀다 > 가스면 : 가스면 지피셔 기러나 <번소 9:59>
- 마술 > 마술 : 開封府 | 랫 마술 戶籍의 일홈을 <번소 9:49>
- 다슴어미 > 다슴어미 : 다슴어미 싱션을 먹고져 흐더니 <번소 9:24>

이 예들도 모두 비어두 음절에서 ‘· > 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훈몽자회>(訓蒙字會, 1527)에서도 다음과 같은 예를 얻을 수 있다.

- (4) 여스 > 여스 : 여스 호 狐 <훈몽 상:19>
- 시르 > 시르 : 시르 증 甕 <훈몽 중:10>
- 마술 > 마술 : 마술 부 府 <훈몽 중:7>

16세기 후반 자료의 하나인 <신증유합>(新增類合, 1576)을 보면 다음과 같다.

- (5) 노로 > 노로 : 노로 장 獐 <신합 상:13>
- 브람(壁) > 브람 : 브람 벽 壁 <신합 상:23>
- *바돌(바를) > 바다 : 바다 히 海 <신합 상:6>

이 예 중 ‘브람’은 ‘바다’와 함께, 비어두 음절 ‘·’의 발달의 또 하나의 양상(‘· > ㅏ’)을 보여준다. 주로 선행 모음이 ‘ㅏ’인 경우에 후행 모음 ‘·’가 ‘ㅏ’로 변한 것인데 16세기에는, 오늘날 제주도 방언(後述 참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경우에도 ‘一’로 변한 경향이 강했던 것 같다. 가령 ‘사롬’(人)에 대하여 ‘사롬’이 16세기 후반기의 문헌에 보인다.

비어두 음절 ‘·’의 변화에는 또 하나의 형태가 있었다. 그것은 ‘· > ㅓ’의 변화로

서 인접모음 ‘ㄱ’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위에 든 <신증유합>(新增類合, 1576)의 ‘노로’의 예보다도 격조사 ‘-으로’의 ‘-오로’에의 변화와 어미 ‘-ㄷ록’의 ‘-도록’에의 변화가 가장 현저하다. ‘-으로’는 ‘-오로’와 ‘-오로’ 사이를 동요하고 있으나 ‘-ㄷ록’은 완전히 ‘-도록’으로 고정되어 버려 16세기의 문헌에서는 <속삼강행실도>(續三綱行實圖, 1514)에 한두 번 나타날 뿐 <번역박통사>(翻譯朴通事, 1547), <번역소학>(翻譯小學, 1500) 등 모든 문헌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

먼저 ‘-오로’의 예를 살펴보자.

- (6) -으로 > -오로 : 사탕오로 중성의 얼굴 밍궤로니 <번박 상:4>
 : 延守 | 원 소노로 아비 발 잡고 <속삼강 효:9>
 : 손가라고로 바비다 <사해 하:82>
 : 죽오모로 뼈 詐티 아니홀 디니라 <소해 2:11>

16세기 초에는 이루 다 열거하기 힘들만큼 ‘-오로’가 대거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세력을 가졌던 것으로 추측되지만 고정되지 못하고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다음 부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동요가 있었다.

- (7) 비야호로 > 뵤야호로 : 도즈기 뵤야호로 몰라 흐더니 <번소 9:55>
 뵤야호로 > 보야호로 : 보야호로 도호니 <번소 8:18>

이 단어의 15세기 문헌의 형태는 ‘비야호로’, ‘보야호로’ 등이었다. 이것이 그 뒤에 ‘보야호로’에 대체되고 이 후자가 오늘의 ‘바야호로’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도록’이 나타나는 예를 살펴보자.

- (8) 저므드록 > 저므도록 : 뵤스와 저므도록 서셔 안즈라 아니 흐거시든 <번소 9:2>
 새드록 > 새도록 : 줌드러 새도록 자느니 <번박 상:21>

15세기에는 대개 ‘드록’이었으나 간혹 ‘도록’이 나타나기도 한다.

(9) 계도록 > 계도록 : 혼빠 계도록 긴다가 묻호야 <월석 7:9>

더리도록 > 더리도록 : 이 사르미 보비롤 더리도록 아니 앓기놋다 <석보 6:26>

이러한 예들과 16세기에 예외없이 ‘도록’이 된 사실을 아울러 생각하면 이미 15세기 중엽부터 동요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비어두 음절에서의 ‘· > ㅓ’의 변화는 가끔 눈에 띈다.

(10) 모르다(不知) > 모로다 : 에엇븐 더 말 모로존 증싱들히 <번박 상:21>

말슴(辭) > 말슴 : 상넛 말소매 널오더 <번박 상:14>

이상 16세기 문헌의 ‘·’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비어두 음절에서 ‘·’는 ‘ㅡ, ㅓ, ㅓ’로 변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비어두 음절의 ‘·’는 특수한 환경에서 ‘ㅓ, ㅓ’로 변하였고, 일반적으로는 ‘ㅡ’로 변하였다.

2) 어두 음절

어두 음절에서 ‘·’는 훈민정음 창제 초기인 15세기 중엽, 즉 <석보상절>(釋譜詳節, 1477)에서부터 다른 모음으로 변하였다.

(11) 차려 > 차려 : 네 차려 드르라 내 굴호야 널오리라 <석보 13:46>

न्ह호아 > 난호아 : 품은 난호아 제여곰 널씨라 <석보 13:37>

호야 > 하야 : 사호논 짜헨 싸 하야 호도다 <두초 16:73>

이렇게 조금씩 동요를 보이다가, 16세기 말의 <소학언해>(小學諺解, 1586)에서 ‘흙’(<흙>), 17세기 초의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 1617)에 ‘흙’이라는 표기가 여러 군데 나타나며, ‘소매’(<스매>)의 예도 보인다. 그리고 <가례언해>(家禮諺解, 1632)에도 ‘소매’가 세 번 정도 출현한다.

(12) 소매(袖) > 소매 : 도치를 소매에 너허 버히다 <동신속삼강 중1:20>

: 윈녁 소매에 너허 <가례 10:25>

흙(土) > 흙 : 흘그로 밍근 사름 곧더시니 <소해 6:122>

: 흘글 저서 분묘를 일우고 <동신속삼강 효5:16>

: 흙물을 마시이니 다시 사다 <동신속삼강 열2:67>

: 기더 흙기 더피니 말을 取흔 쁘디오 <가례 1:44>

: 거리에 존흙 언 거시 그저 혼글기티 일희 니기트니 <박해 중:29>

: 존흙 쁘다 <역해 하:51>

‘흙’은 17세기 국어에서 매우 자주 출현한다. 이는 이미 16세기 문헌인 <소학언해>에 처음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흙글, 흙덩이’ 등 많은 용례가 보이고, <가례언해>에 ‘흙기더피니, 존흙’, <역어유해>(譯語類解, 1690)에 ‘흙’ 등이 있다. 위 용례 외에도 많은 ‘흙’이 ‘흙’과 같이 나타난다. 즉 ‘·’의 제2 단계 소실은 17세기 문헌에 산재하는데 ‘흙’은 거의 중반기에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⁴⁾

‘소매’는 ‘口’ 앞에서 ‘· > ㅛ’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특이한 실례가 된다. 비어두 음절의 경우이긴 하지만 16세기에 보이는 ‘말숨 > 말쑹’도 같은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소매’는 그대로 굳어진 반면 ‘말숨’은 어째서 ‘말쑹’이 되어 버렸는지 불분명하다(송민 1985: 138-139).

이들은 ‘·’의 제1 단계 변화와 제2 단계 변화의 과도기에 나타나는 특이한 용례이다. 이러한 예는 제2 단계의 변화 ‘· > ㅛ’와는 다르지만, 어두 음절의 ‘·’의 변화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어두 음절의 ‘·’는 일반적으로 ‘ㅛ’로 변화였다.

(13) 햅야디다(毀) > 햅여디다 : 혼 가지로 모진 사름미 조차 햅여디니라 <두중 1:9>

4) 이는 제1단계의 ‘·’음이 강하게 작용하던 시기에 특이하게 그 영향을 받아 제1단계와 제2단계의 과도적 변천을 꾀한 용례였다.

- > 해야디다 : 니마히 구러더 해야디니 <박해 중:48>
 햐야브리 > 하야브리 : 某의 寤寐 주머피로 터 하야브리되 <박해 하:54>
 > 해야브리 : 내 두 쌍 새 휘를 다가 다 해야브리게 햐고 <박해 상:32>
 리년 > 래년 : 明年 래년 <한청 1:23>
 드리다 > 다리다 : 天凌象鼻 돛대 줄 드리는 도리 <한청 12:21>
 : 다리어 쓴타 <한청 365>
 ㄱ래 > 가래 : 山核桃 가래 物譜木果 <한청 13:4>
 들팡이 > 달팡이 : 蝸牛 달팡이 <한청 14:49>
 드래 > 다리 : 羊桃 다리 <한청 13:5>
 ㄱ마니(漠) > 가마니 : 漠 가마니 막, 그망업슬 막 <신합 하:55>

‘햐야디다’는 <두시언해중간본>(杜詩諺解重刊本, 1632)에 ‘햐야디니라’,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 1677)에는 ‘햐야디니’로 보이며, 같은 문헌에 ‘햐야브리-’, ‘햐야브리-’(<햐야브리-, 破)가 보인다. 그리고 <역어유해>(譯語類解, 1690)에 ‘가익’(厓애, 缺)가 나타난다. 이들에 보이는 ‘· > ㅏ’는 제2 단계 변화의 선구라고 할 수 있다.

현존 문헌 중 ‘·’의 소실에 대한 결정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은 <한청문감>(漢淸文鑑, 1779)이다. 이 책에는 ‘래년~리년(來年)’, ‘타다~트다(彈)’, ‘드리다~다리다~다리다(拉)’ 등과 같이 ‘·’와 ‘ㅏ’의 구별이 무시된 표기가 보이고, ‘가래’(<ㄱ래, 山核桃), ‘달팡이’(<들팡이, 蝸牛), ‘다리’(<드래, 羊桃) 등의 많은 예에서 그 이전 문헌의 ‘·’가 ‘ㅏ’로 나타난다.

허웅(1986)은 ‘·’의 2 단계 변화를 광범위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한청문감>과 윤음을 보였다. 예를 들면, <유함경도남관북관대소사민윤음>(1783)에는 ‘남(<눔)의 짜’와 같은 말이 보이고, <윤음>(1793)에는 ‘짤(<뽀)짜’, <윤음>(1797)에도 ‘가자’(<ㄱ자), ‘가다듬는’(<ㄱ다듬는), <유중외대소민인등척사윤음>(1839)에서는 ‘짜름’(<ㅈ름) 따위가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볼 때 ‘·’의 2 단계 변화 ‘· > ㅏ’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곽충구(1980)는 18세기의 후반에 들어서면 ‘· > ㅏ’ 변화를 보인 예도 다수 발견된다고 하였다. 종래 ‘· > ㅏ’ 변화에 가려서 ‘· > ㅏ’ 변화는 ‘·’의 부분적인 동

요 정도로 간주해 버렸지만, ‘· > ㅏ’도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⁵⁾ 이러한 변화 예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4) ㄷ려 > ㄷ러 : 너희들 ㄷ려 <운c 3>

훈꺄꺄치 > 훈꺄꺄치 : 고로로 훈꺄꺄치 보논 은퓻을 님꺄꺄고 <운a 4>

훈꺄꺄치 : 훈꺄꺄치 서울 절목대로 시꺄꺄꺄꺄고 <자꺄꺄 9>

별 > ㅍ : 여러 ㅍ 꺄꺄도 <운b 36>

ㄱ꺄꺄는 > ㄱ꺄꺄는 : 신의 꺄 꺄꺄는 비꺄 꺄꺄도 <오꺄꺄 3:62>

꺄 > 꺄 : 꺄꺄가 꺄꺄꺄 꺄꺄 <운e 26>

ㅍ꺄꺄다 > ㅍ꺄꺄다 : 꺄꺄꺄 꺄꺄 ㅍ꺄꺄도 <운d 6>

일꺄꺄로꺄 > 일꺄꺄로꺄 : 비꺄꺄꺄꺄 일꺄꺄로꺄 <오꺄꺄 3:62>

꺄꺄꺄 > 꺄꺄꺄 : 꺄꺄꺄(沈且) <꺄꺄꺄 36>

위와 같이 ‘· > ㅏ’ 예들은 비교적 폭넓게 나타난다. 이러한 예들은 ‘ㄱ꺄꺄는’과 ‘꺄꺄꺄’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현대 국어에서 그대로 굳어져 버린 것들이다.

이러한 ‘· > ㅏ’ 변화는 ‘· > ㅏ’ 변화보다 늦게 18세기 후기의 문헌들에서만 보여진다는 사실에서 모음 체계 내부의 모음 추이의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것은 김완진(1978)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 > ㅏ’ 변화의 말기적 현상으로서 ‘· > ㅏ’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그 자신을 집요하게 고수하고 있던 ‘·’의 자리를 인접한 모음 ‘ㅏ’가 차지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ㅏ’의 후설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소멸의 운명에 놓였던 ‘·’의 말기적 변화 현상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중앙어의 경우, 어두 음절의 ‘·’가 ‘ㅏ, ㅑ, ㅓ’로 변화하였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5) ‘· > ㅏ’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은 김완진(1978)에서 보여지고 있다. 김완진의 해석은 ‘·’가 ‘ㅏ’에 합류한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던 ‘·’가 ‘ㅏ’의 후설화에 합류된 것이라고 하였다.

2. 경상도 방언

경상도에서 간행된 개별 문헌과 이 방언을 관련지은 연구로, 김영배(1981), 김주원(1984), 백두현(1988, 1989)을 들 수 있다. 이 중 백두현(1989)은 영남 간행의 문헌들에 반영된 음운 현상을 통시적 관점에서 밝히고 있어, 중세 문헌에 ‘·’를 지니고 있었던 어휘들이 중부 방언의 그것과 상당한 음운론적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외 오늘날 사용되는 경상도 방언의 자료는 이상규(2000)의 <경북방언사전>을 이용하였다.

1) 비어두 음절

중부 방언에서 비어두 음절에서의 ‘· > ㅡ’ 변화가 이 방언에서도 같은 형태로 변화를 보인다. 그러나 표면상 나타난 ‘· > ㅡ’ 변화 예는 그리 많지 않다

- (15) 아들(子) < 아들 : 李舟는 일흠난 아비와 아들왜니 <두초 8:19>
가득(滿) < ㄱ득 : ㄱ득디 아니 흐녀 <능해 2:40>
나그내(旅客) < 나ㄱ내 : 나ㄱ내 사르미 <능해 4:77>

다음은 경상도 방언의 비어두 음절 ‘·’가 여러 환경에서 중부 방언과 다르게 ‘· > ㅣ’로 변하는 예들이다.

- (16) 모리다(不知) < 모르다 : 헤는다 모르는다 <석보 6:8>
다리다(異) < 다르다 : 다를 이 異 <신합 상:14>
마리다(乾燥) < 마르다 : 業火 | 스라 마르거늘 <능해 8:118>
흐리다(流) < 흐르다 : 촌모새 흐르논 므를 <두중 1:15>
마실~마알(말:)(村) < 마술 : 마술 아 衙 마술 부 府 <신합 상:18>
말쌌(辭) < 말쌌 : 말쌌 브터 아므레 하교라 <석보 6:46>
가실(秋) < ㄱ술 : ㄱ숯 몰애예 <두초 7:8>

- 다시리다(政) < 다스리다 : 다스림도곤 나오리라 <두중 중:18>
 (17) 하리(一日) < 흐르 : 흐르 몇 리를 너시느니긔고 <석보 6:23>
 가리(粉) < ㄱ르 : 스투 면 麵 <신합 상:26>
 나리(津) < ㄴ르 : ㄴ룻 머리에 <두초 10:4>
 노리(獐) < 노르 : 노르 장 獐 <훈몽 상:18>
 시리(飢) < 시르 : 시르 飢兒 <역해 하:14>
 (18) 모지래다(不足) < 모즈라다 : 모즈라 흐느니라 <두초 상:18>

(16)은 중부 방언에서 비어두 음절의 ‘· > ㅡ’ 변화를 보인 것들이 이 방언에서는 ‘ㄹ’ 아래와 ‘ㅅ, ㅆ, ㅈ’ 아래에서 ‘· > ㅣ’ 변화를 보이고 있다. (17)은 중부 방언에서 비어두 음절의 ‘ㄹ’ 아래에서 ‘· > ㅓ’의 변화를 보인 것들이 이 방언에서는 같은 환경 조건에서 ‘· > ㅣ’ 변화를 보이고 있다. (18)은 중부 방언에서 비어두 음절의 ‘ㅈ’ 아래 ‘· > ㅓ’ 변화를 보인 것이 이 방언에서는 같은 환경 조건에서 ‘· > ㅣ’ 변화를 보이는 예이다.

다음은 경상도 방언에서 ‘· > ㅓ’ 변화를 보이는 예이다.

- (19) 다문(只) < 다문 : 다문 사름으로 <번소 8:5>
 (20) 바뿌다(奔) < 바브다 : 世間엿 바브다 아니흔 이룰 <월석 10:20>
 나뿌다 < 나브다 : 나븐줄 업기 호리라 <석보 9:6>
 (21) 하물며(況且) < 흐물며 : 흐물며 더운 저글 當호밋드너 <두초 7:23>
 나물(菜蔬) < ㄴ물ㅎ : ㄴ물와 果實도 <속삼강 효:8>

(19)는 중부 방언에서는 ‘· > ㅓ’ 변화를 보이고, (20)은 ‘· > ㅡ’, (21)는 ‘· > ㅓ’ 변화를 보인다.

중부 방언에서 비어두 음절의 ‘· > ㅡ’ 변화를 보인 것들이 이 방언에서 ‘· > ㅓ’로 변한 예들도 있다.

- (22) 하늘(할:)(天) < 하늘ㅎ : 하늘헛 프레 즘겻느니 <두초 상:68>

오날(을:)(今日) < 오늘 : 어제와 오늘왜 다 하늬브름 부뉘다 <두초 17:60>
 아아래(아:래)(九日) < 아흐래 : 마순 아흐래어나 <석보 9:31>
 바알(밭:)(針) < 바늘 : 바늘롤 두드려 <두초 7:4>
 마안(만:) < 마온(四十) : 이제 마온히로다 <두중 4:1>
 아안(안:)(九十) < 아흔 : 아흔 네찰王 <월석 2:4>
 반다시(必) < 받드시 : 받드시 믿비 흐며 <번소 8:28>
 갈차다(敎·指) < ㄱ르치다 : 隨喜호야 옴겨 ㄱ르쳐 <석보 19:20>

위에서 열거한 자료의 예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비어두 음절에서 ‘·’가 ‘—’로 변하였다.

둘째, 비어두의 ‘ㄹ’ 아래와 ‘ㅅ, ㅆ, ㅈ, ㅊ’ 아래에서 ‘·’가 ‘ㅣ’로 변하였다.

셋째, 순음 위, 아래에서 ‘·’가 ‘ㅓ’로 변하였다.

넷째, 그 외의 환경에서 ‘·’는 ‘ㅏ’로 변하였다.

중부 방언과는 달리 이 방언에서는 비어두 음절에서의 ‘·’의 변화가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 중 첫째의 ‘· > —’의 변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둘째, 셋째의 경우 김영태(1981)에서는 ‘· > ㅣ’, ‘· > ㅓ’ 변화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가정한다. 만약 이들이 직접적인 변화를 입었다면, (16)은 치찰음 아래의 전설모음화⁶⁾가, (19)~(21)은 순음 위 아래에서 원순모음화가, 비어두 음절에서 ‘·’ 음 소실 시기인 16세기에 일어났다는 말과 같아서 이는 국어 음운사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기 때문이다(최명옥 1974:46-47).

또한 비어두 음절에서의 1 단계 ‘·’ 음이 소실된 시기 이후의 문헌들을 보면 (19)~(21)의 예들 중에서 ‘· > —’ 변화를 보여주는 것도 있다.

(23) 다문(다만) > 다문 : 다문 내 믿천만 갑고 <번박 상:34>

날브다(나쁘다) > 날브다 : 그러면 좀 날브니 아닐 거시라 <번박 상:21>

밧브다(바쁘다) > 밧브다 : 오늘은 밧브니 <번노 하:6>

6) 치찰음 아래의 ‘— > ㅣ’의 변화는 19세기 문헌에서 발견된다.

흐믓(하믓) > 하믓 : 干戈에 흐믓 또 드트리 누네 좃느니 <두중 21:33>

느믓(나믓) > 느믓 : 느믓과 과실을 먼디 아니흐야 <동신속삼강 효6:44>

이와 같은 예는 ‘· > ㅁ’와 ‘· > ㅎ’ 사이에 중간 단계의 과정을 거쳤음을 증명하는 좋은 자료가 된다.⁷⁾ 그렇다면 어떠한 중간 단계의 변화를 입었을까. 이 물음에 대해 김영태(1981)는 ‘· > ㅓ’ 단계를 거쳤다고 가정한다. 그 이유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볼 때 ‘ㅁ’와 ‘ㅎ’는 모두 고모음이기 때문에 같은 고모음인 ‘ㅓ’로 변하였다고 봄으로써 ‘ㅓ > ㅁ’, ‘ㅓ > ㅎ’에 이르는 설명이 합리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이, 비어두 음절의 ‘·’ 음 소실 이후의 문헌 중에서 현재 ‘· > ㅁ’, ‘· > ㅎ’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 ‘· > ㅓ’ 형태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 > ㅁ’와 ‘· > ㅎ’ 변화를 보여 준 자료 (16)~(21)은 비어두 음절에서 ‘· > ㅓ’ 변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어두 음절

중부 방언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상도 방언에서도 어두 음절에서 ‘· > ㅎ’ 변화를 보인다. 이것은 중부 방언의 경우처럼 직접적인 변화로 해석된다.

(24) 가늘다(細) < ㄱ늘다 : ㄱ늘 들글만 점곰 느리와 <능해 1:5>

가득하다(滿) < ㄱ득하다 : ㄱ득디 아니 흐녀 <능해 1:66>

달다(甘) < ㄷ다 : ㅅ따시 ㅼㄷ터 ㄷ오 <월석 1:42>

빨리(速) < ㅼㄷ리 : 일만 사롬을 어더 ㅼㄷ리 모라가 <두중 4:15>

차례(第) < ㄷ레 : 사롬의 ㄷ렐 시니라 <소해 2:49>

중부 방언에서 ‘· > ㅎ’ 변화를 보이는 것들이 이 방언에서는 어두 음절 자음이 순음일 때, ‘· > ㅎ’로 나타난다.

7) 위의 자료 이외에도 표준어에서 ‘· > ㅓ’의 변화를 입은 것이 이 방언에서는 ‘ㅓ > ㅁ’와 ‘ㅓ > ㅎ’ 등으로 나타난다. 즉 말씀 > 말썸, 구름 > 구름 > 구름 등. 이는 ‘· > ㅓ’의 중간 단계를 거쳐 ‘· > ㅁ’, ‘· > ㅎ’로 각각 변화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주고 있다.

- (25) 모리다(乾) < 므르다 : 모기며 입시우리 내 몰라 <석보 9:29>
 몬지다(撫) < 몬지다 : 자최를 몬져서 <두초 9:5>
 보시다(碎) < 보스다 : 보술 쇠 碎 <신합 하:59>
 풀(小豆) < 풋기 : 불근 풋기 업거든 <구간 상:88>
 풀(臂) < 풀 : 손과 풀왜 <구간 1:29>

이러한 보기를 더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26) 불다(밝다), 다문(다만), 몰라(말라), 불라(발라), 불바서(밝아서), 모디(마디), 모실(마을간다)

이 예는 경상도 전지역에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어두 자음이 순음계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가 원순모음화되어 ‘ㄴ’로 된 것이다. 최명옥(1974: 43-44)은 순음 아래의 ‘· > ㄴ’ 변화는 17세기 말에 완성된 순음 아래의 원순모음화의 개실파가 이 방언에 먼저 도착하고 뒤이어 ‘· > ㅌ’의 개실파가 밀려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원순모음화의 개실파에 의해 ‘·’가 ‘ㄴ’로 직접적인 변화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순음 아래의 ‘· > ㄴ’ 변화가 일률적이지 못한 데 있는데, 최명옥(1974)은 “‘· > ㄴ’로 된 것이 있는가 하면 ‘· > ㅌ’로 되는 것이 있으므로 일단 순음아래에서 ‘· > ㄴ’의 규칙을 설정하고 잠정적으로 나머지를 예외적인 것으로 취급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중부 방언에서 ‘· > ㅌ’ 변화를 보이는 것이 이 방언에서 ‘· > ㅌ’ 변화를 보이는 예로 주로 경남 지역에서 볼 수 있다.

- (27) 님(他人) < 님 : 님므려 님오디 <석보 19:6>
 너물(나물) < 너물ㅎ : 너물과 과실도 <속삼강 효:8>
 퍼리(파리) < 폰리 : 폰리 승 蠅 <신합 상:6>

이것은 직접적인 변화를 입은 ‘· > ㅓ’의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다. ‘· > ㅓ’가 갖는 성격은 ‘· > ㅡ’나 ‘· > ㅏ’와 상당히 다르다. 후자는 ‘·’가 ‘ㅡ’나 ‘ㅏ’쪽으로 진행된 변화이지만, ‘· > ㅓ’는 변화의 형식을 이렇게 나타냈을 뿐이지 ‘·’가 ‘ㅓ’쪽으로 진행된 변화가 아니다. 선행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 > ㅓ’는 모음 체계에서 ‘ㅓ’가 후설화하면서 ‘·’의 영역을 차지한 것이며, ‘ㅓ’가 ‘·’의 영역에 들어감으로써 잔류해 있던 ‘·’를 흡수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 > ㅓ’는 ‘· > ㅏ’ 변화의 말기적 증상으로 볼 수 있다(김완진 1978: 132-133).

아래의 예는 중부 방언에서와 같이 이 방언에서도 ‘· > ㅡ’ 변화를 보여 준다.

(28) 흙(土) < 흙 : 흘기 무두ㅓ로 올타 흐고 <월석 18:40>

이것은 제2 단계 어두 음절 ‘·’의 소실 과정 초기에 제1단계에서의 ‘· > ㅡ’ 잔재 세력이 제2 단계 변화 시기에 밀려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완진 1971:26).

중부 방언에서 어두 음절의 ‘· > ㅏ’가 이 방언에서 ‘· > ㅓ’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29) 실기(狸) < 숲 : 숲 리 狸 <훈몽 상:19>

(29)는 어두 음절에서의 ‘· > ㅓ’ 변화가 ‘· > ㅡ’ 변화를 거쳐 치찰음 아래의 ‘ㅡ > ㅓ’ 전설모음화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보인 자료를 통하여 경상도 방언에서의 ‘·’의 2 단계 변화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다. 어두 음절에서 이 방언은 ‘· > ㅏ’, ‘· > ㅓ’, ‘· > ㅓ’, ‘· > ㅡ’, ‘· > ㅓ’ 등으로 변하였다. 그 중 ‘· > ㅡ’ 변화는 제1 단계 ‘· > ㅡ’의 영향 때문이고, ‘· > ㅏ’는 제2 단계의 일반적인 변화이다. 그리고 순음 아래에서는 원순 모음화 현상으로 ‘· > ㅓ’ 변화를 겪었으며, ‘· > ㅓ’ 변화는 모음 추이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 > ㅓ’ 변화는 ‘· > ㅡ’의 중간 단계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전라도 방언

전라도에서 간행된 문헌을 통한 전라도 방언에 대한 연구로 안병희(1972), 전광현(1983)을 비롯하여 19세기 후기 전라도 방언을 반영한 판소리계 소설의 방각본에 대한 최전승(1986)의 연구가 이 방면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그 외에도 여기서 사용되는 전라도 방언의 자료는 이기갑 외(1998)의 <전남방언사전>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의 <한국방언자료집, 전라북도편>, 그리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의 <한국방언자료집, 전라남도편>을 참고하였다.

1) 비어두 음절

전라도 방언에서 비어두 음절의 ‘·’는 일반적으로 1 단계 변화 ‘· > ㅡ’를 벗어나 있는 사실이 주목된다. 그리고 그 주된 변화의 경향은 어두 음절에서와 동일한 ‘· > ㅏ’로 나타난다.

- (30) 말삼~말쌈(말씀) < 말씀 : 말씀 브터 아므레 하고라 <석보 6:46>
오날~오닐(오늘) < 오늘 : 어제와 오늘왜 다 하늬브롬 부눗다 <두초 17:60>
하날(하늘) < 하늘 : 하늘햇 브레 줌겻느니 <두초 상:68>
가삼~가심(가슴) < 가슴 : 가슴미며 허리 우히 <월석 2:41>
아달~아덜(아들) < 아들 : 李舟는 일흠난 아비와 아들왜니 <두초 8:19>
메나리~메너리~메누리(머느리) < 머느리 : 머느리 식아비 식어미를 <소해 2:2>
반다시(반드시) < 반드시 : 반드시 밋비 흐며 <변소 8:28>
아람(아름) < 아름답 : 세 아름답이나 흐니 <두중 하:31>
야달(여덩) < 여덩, 여덩 : 몇섬 톡실고 여덩 섬 토리라 <두초 상:11>

이러한 예들은 국어사에서 16세기에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 > ㅡ’ 변화가 중앙어에서 전라도 방언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가, 근대 국어에 들어와서 ‘·’의 제2 단계 변화에 참여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김완진(1967)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어두 음절에서 ‘· > ㅏ’, 비어두 음절에서 ‘· > ㅑ’ 라는 양상은 특정 음소의 변화에 관한 음절 위치적 조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출현 시기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예를 들면, 17세기 초기에 등장하는 ‘흙(土) > 흙’의 변화는 ‘·’의 제1 단계 변화 시기에 일어났으며, 비어두 음절에서의 ‘·’라 하더라도 ‘·’의 제2 단계 변화 시기에 적용되는 어휘들은 ‘· > ㅏ’ 변화를 따른다(예 : 사롭 > 사람, 벉롭 > 바람, 일쿨- > 일캣- 등).

비어두 음절 위치에서 ‘· > ㅏ’ 변화는 아래와 같은 용언 어간에서도 적용되었다.

(31) 가라치-~가르치(가르치-) < ㄱ라치- : ㄱ라초물 信受 흐리라 <월석 17:53>

다사리-(다스리-) < 다스리- : 世間 다스를 마리며 <석보 19:24>

또한 보조사 ‘느’와 목적격조사 ‘-을, -를’의 19세기 전라도 방언형은 ‘· > ㅏ’ 변화와 ‘· > ㅑ’ 변화를 수의적으로 교체하여 보여주고 있다. 어미 ‘-느냐’, ‘-느고’, ‘-느’ 등의 경우도 역시 동일한 변화 과정을 보이고 있다. 신재효 <판소리 사설>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32) 밍호갓탄 <수절가 하:17>~싱씨갓탄 자식 <수절가 상:43>

가라치난되<심청가 상:14>~가면 다시 못오년 <상:8>~아니되난 이리업고 <상:18>

따라서, 비어두 음절에서 ‘· > ㅏ’ 또는 ‘· > ㅑ’ 변화가 이 방언에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경우는 ‘·’가 ‘ㅣ’로 바뀌는 예들이다.

(33) 가리(粉) < ㄱ리 : ㄱ리 면 麵 <신합 상:26>

시리(甌) < 시리 : 시리 甌兒 <역해 하:14>

가실(秋) < ㄱ실 : ㄱ실 물애예 <두초 7:8>

저실(冬) < 겨실 : 겨스레 므레 풀여 <구간 1:75>

여시(狐) < 여스 : 여스와 숲과는 足히 議論티 묻흐리로다 <두초 8:12>

(33)은 전라도 방언에서 후설 모음이 ‘ㅅ, ㅈ, ㅊ, ㄹ’ 등과 같은 전설성 자음 아래서 전설모음화하는 현상으로 최전승(1986)은 19세기 후기의 전라도 방언에서 이 전설모음화⁸⁾가 매우 생산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부 방언의 전설모음화 양상에 비해 경상도 방언이나 전라도 방언을 포괄하는 남부 방언의 전설모음화가 통시적으로 훨씬 이른 변화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전라도 방언의 ‘· > |’ 변화는 ‘· > - > |’ 곧, ‘-’ 형의 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여진다(시르 > 시르 > 시리). 국어사에서 볼 때 ‘ㅅ, ㅈ, ㅊ,’ 아래 오는 ‘·’가 비어두 음절에서 ‘-’로 바뀐 것은 이미 16세기 경부터 나타났고(아춤 > 아춤, 춤 > 춰), 또 ‘-’가 ‘|’로 바뀐 것은 19세기에 들어와 나타난 사실임을 고려할 때(아춤 > 아침, 법춤 > 법칙), 위에서 보는 전라도 방언의 단어들도 이와 동일한 변화 과정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

2) 어두 음절

전라도 방언에서 어두 음절 ‘·’의 변화는 중부 방언의 변화와 대체로 일치한다.

(34) 가트다(갈다) < 곁다 : 도로 오락 흠 곁다라 <두초 5:51>

쌈:다(쌌다) < 숲다 : 물애 술마 <능해 1:81>

하지만 몇몇 낱말은 선행하는 자음에 따라서 이러한 일반적인 방향과는 다른 변화를 보이는 수가 있다.

(35) 모르다(乾) < 므르다 : 業火 | 스라 므르거늘 <능해 8:118>

문치다(撫) < 문지다 : 자취를 문져서 <두초 9:5>

몰다(調) < 몰다 : 소리를 몰根이 이니 <능해 4:110>

8) 최전승에서는 이 전설모음화의 성격을 구개음화라고 보고 치찰음 아래의 후설 비원순 모음 ‘-’가 구개적 환경에서 구개음화되어 전설모음 ‘|’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물리다(使乾) < 물되다 : 물되디 못홀소나 <두중 하:44>
 몹다(淸) < 몹다 : 큰 아드룬 아홉 서레 비치 몹그니 <두초 8:24>
 보르다 < 브르다 : 가져 가아 브르스븐니 <월석 2:9>
 뽀수다(碎) < 브스다 : 브술 쉐 碎 <신합 하:59>
 볍다(明) < 볍다 : 닛 위여 볍게 흐며 <석보 9:35>
 뽀다(步) < 뽀다 : 새뱃 히예 나셔 뽀눗다 <두초 8:27>
 뽀다(吸) < 썰다 : 괴운을 썰에 흐라 <구간 6:59>
 뽀다, 뽀수다 (粉) < 붓다 : 드트니 드외의 붓아 디거늘 <석보 6:31>
 폴다(賣) < 폴다 : 지브 모셔다가 종사마 프라시놀 <월석 8:100>
 (36) 노물(菜) < 노물 : 노물과 과실도 <속삼강 효:8>
 놉(他人) < 놉 : 놉의 그옥흔 더롤 옛보다 아니흐며 <소해 3:12>
 모실(村) < 므술 : 므술과 동관과 변을 불으느니 <소해 2:45>
 몰(馬) < 몰 : 몰피 누리디 아니 흐는 거시여 <두중 상:36>
 포리(蠅) < 프리 : 프리 승 蠅 <신합 상:6>
 풀(腕) < 풀 : 손과 풀왜 <구간 1:29>
 풋(小豆) < 풋 : 불근 풋기 업거든 <구간 상:88>

(35)의 단어는 용언이고, (36)의 단어는 체언으로서, 중부 방언 ‘ㅏ’에 대한 전라도 방언 ‘ㅓ’의 대응은 어간의 종류와 관계 없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예의 고행에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중세국어에서의 ‘·’가 표준어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중부 방언에서는 ‘ㅏ’로 음운 변화를 겪은 반면에 전라도 방언에서는 ‘ㅓ’로 변화한 사실을 말해준다. 그런데 이 예들의 ‘·’는 순음 뒤에 놓여 있다. 바로 이러한 음운적 환경으로 전라도 방언에서 ‘·’는 순음 뒤에서 ‘ㅓ’로 변하였다. 국어사에서 보아도 ‘ㅡ’가 양순음 ‘ㅁ, ㅂ, ㅍ’ 등에 후행하거나 선행하면 이 ‘ㅡ’는 ‘ㅓ’로 바뀌는 원순모음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전라도 방언에서의 원순모음화 현상은 ‘ㅡ>ㅓ’ 뿐만 아니라 (35)와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ㅓ’가 있고 ‘ㅓ>ㅓ’와 ‘ㅓ>ㅓ’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전라도 방언에서의 원순모음화 현상은 중부 방언보다 넓게 분포되어 강력히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음운 과정의 일환으로 (35)와 (36)의 단어들이 전라도 방언에서 ‘·’가 ‘ㄱ’로 변화되어 오늘날의 어형을 갖게 된 것이다.

다음의 이례적인 낱말들은 전라도 지역 안에서도 변화의 방향이 달리 나타나는 데 이로 인해 이 지역의 방언 분화의 한 측면을 엿볼 수 있다.

(37) 풀다~팔다(賣) < 풀다

(37)의 ‘팔다’는 이 지역에서 위의 두 어형으로 실현된다. ‘팔다’는 전라도 북부 지역에서 보이며, ‘풀다’는 나머지 전 지역에 분포한다. 일반적으로 중세 문헌의 ‘·’는 양순음 다음에서 ‘ㄱ’로 변하는데 이 변화는 이 지역 전체에서 일어난다(예 : 불서 > 풀세, 풋기 > 풋, 물 > 풀). 이러한 변화의 방향에 비추어 볼 때, 위의 두 어형이 전라도 안에서 공존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38) 너물~노물(菜) < 느물ㅎ

넘~눔(他人) < 늠

(38)의 ‘느물’의 경우, 15세기 중앙어에 ‘느물ㅎ’로 나타나는 이 낱말은 이 지역에서 남북의 분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너물’ 형은 북부뿐 아니라 동부에도 분포하여 서남부의 ‘노물’과 대립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위의 ‘팔다’와는 조금 다르다. 한편, 앞에서도 말했듯이 어두 음절에서의 ‘·’는 이 지역에서도 중부 방언과 마찬가지로 ‘ㄱ’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양순음 다음은 제외), ‘나물’의 경우는 이와는 전혀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어 특이하다. 서남부 지역에 나타나는 ‘노물’ 형은 후행하는 양순음 ‘ㄱ’에 동화되어 ‘· > ㄱ’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에서 설명한 ‘풀다 > 풀다’의 변화도 역시 선행한 ‘교’에 이끌린 결과로 추정된다.

‘·’가 ‘ㄱ’로 나타나는 현상은 그 외에도 ‘풀 > 펄’, ‘물국 > 멀국’의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전북의 북부 지역에 분포되는 특징을 보인다. 즉 ‘·’가 ‘ㄱ’로 변화한 지역과 ‘ㄱ’로 변화한 지역의 중간에서 ‘ㄱ’로 변화한 어형이 눈에 띈다.

또 15세기 중앙어의 ‘ㅎ다’도 이 지역에서 ‘허-’와 ‘하-’의 두 방언형을 갖는다.

(39) 하다~허다(하다) < 허다 : 白日이 올라가도록 흐시란디 만덩 <두초 2:7>

그렇게 : 그랑께, 그런디 : 그란디, 어쩔라고 : 어짤라고, 어쩐 : 어짤

허다 : 그랑께(보성), 하다 : 그랑께(영암)

그 분포는 ‘허-’가 동북부에, ‘하-’가 남부에 나타나 ‘나물’의 경우와 비슷하다. 다만 ‘하다’의 경우는 원순성을 가진 동화주가 없으므로 남부에서는 원순 모음 ‘ㄱ’로 변하는 대신 ‘· > ㅏ’ 변화를 보이고 북부는 ‘나물’과 마찬가지로 ‘· > ㅏ’ 변화를 보인다.

동사 ‘하다’가 포함된 위의 복합어들도 모음 ‘ㅏ’와 ‘ㅑ’의 대립을 보이는 것은 동사 ‘하다’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때때로 위의 예에서처럼 ‘허-’와 ‘하-’의 접촉 지대에서는 ‘하다’와 이의 복합 표현 사이에 불일치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일치는 ‘하다’와 이의 복합 표현 사이의 등치 관계를 깨뜨릴 정도의 무질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형상은 방언 접촉에서 흔히 만나는 뒤섞임의 예로 해석된다.

현대 전남 방언과 전북 방언간의 음운론적 차이 가운데 하나는 순음 아래 ‘·’의 변화 양상의 양적인 차이에 있다고 하겠다. 이 음성 환경에서 ‘·’가 전남 방언에서는 대부분 ‘ㄱ’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전남 방언의 현상은 경상 및 함경 방언과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이돈주 1979; 최학근 1975). 그러나 전북 방언에서 이러한 변화는 전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다. 북부는 이러한 동화와는 무관한 ‘· > ㅏ’(또는 ‘· > ㅑ’)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일례로 1935년 중앙고보 김용운 씨가 호남 익산을 중심으로 방언 어휘를 <한글 3-8호: 8-9>에 보고하는 가운데, ‘·’의 변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여 놓았다(최전승 1986).

(40) ‘·’음의 전화(轉化). 전북 지방은 대개 ‘ㅏ’로, 전남 지방은 대개 ‘ㄱ’로 발음함.

예 ‘팥(豆), 말(馬), 팔(腕), 파리(虫)…’를 전북 지방은 ‘팍, 말, 팔, 파리…’로, 전남 지방은 ‘꼰, 몰, 풀, 포리…’로 발음함.

위의 관찰은 비전문가에 의한 소박한 관찰이나, 일반적인 경향을 엿보기는 충분

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小倉進平(1924)에서 다시 확인된다. 그에 의하면 순음 아래 ‘· > ㄱ’ 변화는 충청북, 경북, 강원도 동해안 일대는 나타나지 않으며 전남과 경남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는데, 전북의 경우는 전남 지방에 인접하여 있는 남원, 정읍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북 임실과 김제는 어휘에 따라서 ‘ㄴ’와 ‘ㄱ’ 두 가지의 발음이 공존한다 하였다. 즉 전북 방언에서 순음 아래 ‘· > ㄱ’의 변화는 비생산적이었다.

4. 충청도 방언

충청도 방언은 小倉進平(1918, 1922)과 河野六郎(1945)으로부터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거의 반세기 동안이나 경기 혹은 중선 방언권에 예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충청도 방언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이 방언이 마한·백제 시대에는 전라도와 동일 방언권이었던 사실(史實)과, 경기·강원·경상·전라도의 인접으로 접촉 방언의 성격을 형성하여 왔을 것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이다.

1) 비어두 음절

충청도 방언에 나타나는 통시적 음운 변화는 중부 방언의 전반적인 경향과 대체로 일치한다. 특히 비어두 음절에서는 주로 ‘-’로 바뀌었으며 이것은 다른 지역과 별반 다르지 않다.

(41) 다르-(異) < 다르- : 흐나토 아니며 다르도 아니호미 <월석 7:70>

ㄹ르치-(敎) < ㄹ르치- : ㄹ르쳐 경계흠을 <소해 6:47>

기르마(鞍) < 기르마 : 기르마 안 鞍 <신합 상:31>

2) 어두 음절

중세어에서 어두 음절의 ‘·’는 현대에 ‘ㅏ, ㅑ, ㅓ’ 등으로 바뀌었으나, ‘ㅓ’로 변한 것은 많지 않다고 하는데(허용 1986: 341), 성낙수(2000)는 충청도 방언에서 중세어에 ‘·’로 기록된 것이 ‘ㅓ’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42) 념(남) < 늠 : 늠의 그윽한 더를 옛보다 아니호며 <소해 3:12>

너물(나물) < 느물ㅎ : 느물과 과실도 <속삼강 효:8>

퍼리(파리) < 프리 : 프리 승 蠅 <신합 상:6>

널-(날다) < 놀- : 想을 가진 전초로 느로디 <능해 8:75>

더리-(데리다) < 드리- : 샷기롤 드려 <두초 10:18>

-허다(-하다) < -호다 : 白日이 올마가드록 호시란디 만덩 <두초 2:7>

‘드리->더리-’의 변화는 문법 형태 ‘-드려>-더려’에서도 발견되는바, 이것은 ‘· > ㅓ’ 변화에 해당한다.

5. 함경도 방언

함경도 방언에 관해서는 19세기 후기의 함북 방언을 반영한 푸칠로의 <로한즈던(露韓字典)>에 대한 小倉眞平(1931)과 최학근(1976), 곽충구(1986, 1991)의 연구가 주목된다. 특히 곽충구(1991)는 러시아에서 간행된 자료들을 분석하여 19세기 함경도 방언의 공식적 체계화는 물론 통시적 측면의 고찰을 통해 이 지역 방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

함경도 방언의 ‘·’의 변화는 비어두 음절에서 ‘· > ㅑ’, 어두 음절에서 ‘· > ㅓ’로 거의 규칙적으로 변화하여 중부 방언과 동일한 형태로 ‘ㅏ, ㅑ’에 합류하였다.

1) 비어두 음절

중세 국어의 비어두 음절 ‘·’는 선행 음절의 모음이 원순 모음이거나, 선행 자음이 원순 자음일 경우 원순성 자질을 지닌 선행 요소에 후행하여 ‘ㄱ’나 ‘ㄷ’로 변한다.

(43) 오늘(今日) < 오늘 : 어제와 오늘왜 다 하늬 브롬 부눗다 <두초 16:60>

보두라분, 보두래비(軟) < 보드랍다 : 보드랍기 흐더시니 <석보 11:30>

(44) 가물(旱) < ㄱ물 : 하늬 ㄱ마리 업도다 <두초 7:36>

(43)은 중세 국어에서 어두 음절 모음이 ‘ㄱ’, 후행 음절 모음이 ‘·’일 때, ‘·’가 이 방언에서 ‘ㄷ’로 변하는 예들이다. (44)는 중세 국어의 비어두 음절 ‘·’가 ‘ㄷ’로 변하는 예인데, 선행 자음이 순자음일 경우에만 이러한 대응이 성립된다. 이 예들은 모두 원순성 자질을 지닌 선행 요소에 후행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외의 환경에서 중세 국어의 ‘·’는 규칙적으로 ‘一’로 변한다.

(45) 아즈마니 (叔母) < 아즈마님 : 아바넝기와 아즈마넝기와 <석보 6:1>

아즈바니(叔父) < 아즈바님 : 아즈바님 孝寧大君 <능해 발:3>

바름(風) < 브롬 : 브람 블면 여름여는 거시여 <두중 상:36>

사름(人) < 사름 : 사름물 기걸흐야 <석보 6:23>

다섯(五) < 다섯 : 다섯 줄깃 蓮花를 사아 <석보 6:8>

아스(弟) < 아스 : 나라홀 아스 맛디시고 <월석 1:5>

여스(狐) < 여스 : 여스와 숲과는 足히 議論티 못흐리로다 <두초 8:12>

자르더리(袋) < 자르 : 자르 디 袋 <신합 상:31>

따라서 (43), (44)는 ‘· > ㄷ’ 변화라기 보다는 ‘· > 一’ 변화 이후에 다시금 ‘一 > ㄷ’ 변화를 경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자는 원순성 자질에 의한 간접 동화이고, 후자는 원순성 자질에 의한 직접 동화이다.

2) 어두 음절

중세 국어에서 어두 음절의 ‘·’는 중부 방언과 마찬가지로 함경도 방언에서도 ‘ㅏ’로 변하였다.

(46) 바람(風) < 브롬 : 브롬과 무뢰와 <삼강 효:25>

바리기(棄) < 브리- : 世間 브리고 피해 드러 <석보 6:12>

박쥐(蝙蝠) < 북쥐 : 북쥐 蝠 <구간 6:68>

마디(伯) < 몰 : 모든 나히 열아홉이오 <소해 6:60>

파기(掘) < 꼭- : 피무든 흘굴 파 가져 <월석 1:7>

사매(袖) < 스매 : 옷 스매 일즉 므르디 아니호는다 <두초 8:45>

삼키(呑) < 슴끼- : 호마 도로 슴끼노라 <두초 8:59>

닥(鷄) < 둑 : 둑굴 해 기르놋다 <두초 8:33>

자라-(足) < 즈라- : 조브면 옷지으매 즈라디 못호여 <번노 하:56>

자주(類) < 즈조 : 즈조 듣즈반 마른 <석보 6:11>

탁(頤) < 툑 : 사르미 툑굴 글회여 즐겨 옷게 호느니 <두초 8:4>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점은 ‘·’의 변화가 중부 방언과는 달리 거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46)의 단어들 중에는 중부 방언에서 ‘ㅏ’ 이외의 모음으로 변화는 것도 있지만, 이 방언에서는 일사분란하게 음절 위치에 따라 ‘ㅏ’ 혹은 ‘ㅑ’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이 변화 유형에서 예외적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 ‘흙’이다.

(47) 흙기(土) < 흙 : 모시흙기 드외어늘 <월석 2:50>

하지만 이 방언형은 육진의 경원, 온성, 회령, 종성에서는 ‘함’으로 나타나 이마저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⁹⁾ 이것은 이 방언이 고립 방언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어떤 음운 변화에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차용이 용이하지 않다거나 언중의 사회적 성층이 수평적임을 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함경도 방언에서도 남부 방언에서 보이는 ‘· > ㅏ’의 원순모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 (48) 밭(踏) < 밭- : 새뱃 히에 나서 밭놓다 <두초 8:27>
- 뽕수다(碎) < 뽕스다 : 밭술 썰 碎 <신합 하:59>
- 몰(伯) < 몰 : 내 아드리 비록 ㅎ디라도 <월석 2:5>
- 빨다(吸着) < 썰다 : 피를 썬디 말라 <삼강 총:10>
- 풀다(賣) < 풀다 : 지브 모셔다가 종사마 프라시닐 <월석 8:100>
- 포리(蠅) < 프리 : 프리 승 蠅 <신합 상:6>
- 보루다(剝) < 브르다 : 모귀 날로더 <구간 상:42>

(48)은 순자음 아래에서 ‘·’가 ‘ㅏ’로 변하였다.

또한 이 방언에서도 중부 방언에서처럼 ‘· > ㅏ’ 변화가 보인다.

- (49) -덜(等, 복수접미사) < 들ㅎ : 百姓들 ㅏ千 사르미 <월석 2:76>
- 꺼지(至) > 썬지 : 어디 썬지 ㅎ엿느뇨 <두중 상:44>

이들 변화는 김완진(1978)의 견해대로 모음 체계의 변화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의 말기적 증상으로서 오래도록 존속했던 ‘·’가 ‘ㅏ’의 후설화에 흡수된 예이다. 음운 변화는 어휘에 따라서 그 변화 속도가 다르다는 논리에 바탕을 둔 해석이다.

9) 온성(<한글>9-1, 1933년 오세준 조사), 경원군지(1988), 무산군지(1984), 河野六郎(1945) 참고. 이는 같은 육진에서도 경흥 지역어가 가장 개신적임을 의미한다. 지리적으로 보아 경흥군은 남부로부터의 개신파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다.

한편 ‘턱’은 푸칠로의 <로한즈던>에는 ‘탁’으로 전사되어 있어 이 방언형이 초기에는 ‘· > ㅏ’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함북에서는 ‘문턱’의 방언형이 ‘문트기’로 나타난다. 이는 이 방언에는 ‘·’가 매우 규칙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6. 평안도 방언

문헌을 통한 평안도 방언에 관한 연구는 김영배(1982), 최임식(1984), 최명옥(1985, 1987)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평안도 방언의 자료는 김영배(1997)의 <평안방언연구(자료편)>를 활용하였다.

1) 비어두 음절

최임식(1984)은 비어두 음절에서 ‘·’의 변화는 제1 단계 변화로서 ‘· > 一’ 혹은 ‘· > ㅅ’ 나 ‘· > ㅈ’로 분석했다¹⁰⁾

(50) 마을(里) < ㅁ술ㅎ : ㅁ술과 동관과 벌을 붙으느니 <소해 2:45>

바늘(針) < 바늘 : 바늘을 두드려 <두초 7:4>

사흘(三日) < 사흘 : 사흘 닷셋 ㅁ르친 거슬 <소해 5:113>

아침(朝) < 아침 : 아침미 개도다 <두초 7:7>

맞춤너 < ㅁ춤내 : ㅁ춤내 고터디 아니호려니와 <두초 3:54>

가득 < ㅁ득 : 돌해 ㅁ득호얏도다 <두초 7:5>

(51) 하루(一日) < 하루 : 하루 몇 보를 녀시느리잇고 <석보 6:223>

자루(袋) < 자루 : 자루 더 袋 <신함 상:31>

마흔(四十) < 마흔 : 마흔니 ㅁ죽고 <월석 2:41>

(52) 오른(右) < 올흔 : 올흔 엇게를 매왔고 <두초 16:34>

몰우논 < 모르다 : 헤는다 모르는다 <석보 6:8>

오루문 < 오르다 : 바룻므를 소사 오르개 호느니라 <석보 13:9>

(50)은 중부 방언에서와 마찬가지로 제1단계 변화 ‘· > 一’를 보여 준다. (51)과 (52)는 ‘· > ㅅ’ 변화 후에 ‘ㅅ > ㅈ’의 적용을 받은 것인데, ‘· > ㅅ’ 변화는 (51)¹¹⁾에서

10) 비어두 음절 ‘·’의 일반적인 변화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승녕(1949: 153-169) 및 이기문(1959: 76-95)을 참조하길 바란다.

11) 이승녕(1949: 201)에서 ‘하루’를 ‘·’의 중출에 대한 이화 작용으로 보았다. 그런데 (51)에서 ‘마흔’은 중부 방언에서 ‘· > 一’ 변화를 입어 ‘마은>마흔’으로 변화했다.

는 ‘·’ 자체의 음운 변화에 의하여, (52)는 선행하는 ‘ㄱ’의 원순성에 의한 동화 작용으로 각각 ‘·’가 ‘ㄱ’로 변하였다.

다음은 비어두 음절의 ‘·’가 ‘ㅏ’로 변한 예들이다.

- (53) 바람 < 브롬 : 브롬과 무뤼와 <삼강 효:25>
- 사람 < 사롬 : 사롬물 괴결호야 <석보 6:23>
- 당사 < 당스 : 당스 고 賈 <신합 하:17>
- 나가네 < 나ㄱ내 : 나ㄱ내 사롬미 <능해 4:77>
- 반다시 < 반드시 : 반드시 기턴 경시 잇느니라 <두초 상:1>

(53)은 선행 모음에 주로 ‘ㅏ’를 가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따라서 이는 이기문(1959)과 같이 선행 모음에 의한 동화 작용에 의해 ‘·’가 ‘ㅏ’로 변했다고 볼 수도 있다.¹²⁾

다음은 ‘·’가 ‘ㅓ’로 변화한 것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 (54) 한걸 < 혼궐 : 내몸 許호물 혼궐ㄱ티 <두중 2:32>
- 일컫논 < 일궐다 : 일궐를 칭 稱 <신합 상:13>
- 써지 < -ㄱ장 : 게으른 쁘디 ㄱ장 기도다 <두초 7:6>

이것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51)의 ‘· > ㅏ’나 (53)의 ‘· > ㅏ’ 변화와 함께 비어두 음절에서 ‘·’의 일반적인 변화인 ‘· > ㅓ’ 변화와는 다른 유형의 변화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비어두 음절에서 ‘· > ㅓ’ 변화와 ‘·’ 자체의 음운 변화에 의한 ‘· > ㅏ, ㅓ, ㅓ’ 변화는 서로 다른 이유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다.

12) 이기문(1959:86)에서는 ‘· > ㅏ’ 나 ‘· > ㅓ’ 변화는 전자가 선행 ‘ㅏ’에 의하여 후자가 선행 ‘ㅓ’에 의하여 동화 작용을 입은 것으로 특수한 환경에서의 변화라 하고, 비어두 음절에서 ‘·’의 일반적 변화는 ‘·’가 ‘ㅓ’로 변화하는 것이라 했다.

2) 어두 음절

어두 음절에서 ‘·’의 일반적인 변화는 ‘· > ㅏ’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평안도 방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55) 참 < 춤 : 춤 진 眞 <신합 하:18>

낫출 < 낫 : 부터 ㅏ치 거시며 <능해 1:47>

날근 < 늙다 : 오시 ㄴㄱ니 <두초 26>

달(雞) < 닭 : 닭 가히 주거 <능해 8:91>

자디(紫) < 즈디 : 거믄 니와 즈디 브리 ㅏ외니니라 <능해 5:57>

차자 < 좃다 : 길홀 차자 부텃기로 가는 저기 <석보 6:19>

가는(細) < ㄱ놀다 : ㄱ는 보리는 쏘 ㄱ는도다 <두초 10:8>

갓틀지니라 < ㄱㅎ다 : 나토미 ㄱㅎ나 <능해 2:89>

함께 < ㅎㅍ : ㅎ ㅍ 소리내야 술보디 <석보 9:39>

(55)는 어두 음절에서 순음을 제외한 모든 자음 아래의 ‘·’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 경우 ‘·’는 ‘ㅏ’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순음 아래의 ‘·’ 변화를 보도록 하자.

(56) 말(馬) < 몰 : 몰의 ㄴ리디 아니호는 거시여 <두중 상 :36>

팔 < 폴 : 손과 폴왜 <구간 1:29>

바람 < 브롬 : 브롬과 무뤼와 <삼강 효:25>

맛춤니 < ㅁ춤내 : ㅁ춤내 고티디 아니호려니와 <두초 3:54>

발넌(踏) < ㅂ다 : ㅂ바 주길까 호논 ㅂ디라 <석보 11:1>

말근 < ㅁ다 : 큰 아드론 아홉 서레 비치 ㅁㄱ니 <두초 8:24>

빨리 < ㅍ리 : ㅍ리 도아 <능해 7:49>

(56)은 순음이라는 음절 두음과는 상관없이 어두 음절의 ‘·’는 ‘ㅏ’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남부 방언에서 볼 수 있는 변화인 순음에 의한 ‘· > ㅏ’와

같은 원순모음화를 경험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¹³⁾

그런데 다음의 예를 통해 순음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동화 작용에 의하여 ‘·’가 ‘ㄱ’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57) 논우며(分) < 논호다 : 물근거시 일로브터 논호며 <능해 5:13>

호올노(獨) < 호올로 : 내 호올로 그똥 정신의 <두초 7:29>

도투다(爭) < 드토다 : 드토돌 아니 호노이다 <석보 11:34>

(57)은 ‘·’에 후행하는 ‘ㄱ’의 원순성에 의하여 ‘· > ㄱ’로 변화한 것인데, 이러한 변화는 당시의 모음 체계에서 ‘·’가 비원순 모음으로서 원순 모음인 ‘ㄱ’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의 짝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변화는 ‘·’에 선행하는 ‘ㄱ’에 의한 ‘· > ㄱ’ 변화와 함께 ‘·’의 제1 단계 변화에 해당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¹⁴⁾

이렇게 볼 때 어두 음절 ‘·’의 변화는 예(57)과 같은 동화 작용에 의한 ‘· > ㄱ’ 변화를 제외하면 ‘· > ㅏ’로 변화했다고 하겠다.

그러나 어두 음절 ‘·’가 ‘ㅏ’로 변화하지 않은 예외를 다음에서 볼 수 있다.

(58) 소미 < 스매 : 옷 스매 일즉 므르디 아니호는다 <두초 8:45>

홀기 < 홀 : 모시홀기 드외어늘 <월석 2:50>

(59) 버리다 < 브리다 : 내것 브려 兪憲 주미 <석보 13:39>

벌(獲) < 벌 : 四白벌를 바그라 호시고 <능엄 발:4>

(58)의 예외는 제1 단계 변화의 여파로 간주되어 온 것으로 이것은 평안도 방언에서도 여전히 어두 음절 ‘·’의 변화의 예외로 남게 된다. 그리고 (59)는 순음에 의한 ‘· > ㄱ’ 변화를 겪은 뒤에 ‘ㄱ > ㅏ’와 같은 비원순 모음화¹⁵⁾가 적용된 것이라고

13) 순음에 의한 ‘· > ㄱ’ 변화는 이승녕(1949: 184-87) 및 이돈주(1969)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물(馬) > 물, 므술 > 모실, 붉다 > 북다, 풋 > 풀, 프리 > 포리’ 등이 그것이다.

14) 이기문(1959)에서 ‘드록 > 도록, 호올 > 호울, 그외 > 고의, -으로 > -오로’ 등의 변화가 제1 단계 ‘·’의 변화 시기인 16세기에 나타나고 있음을 밝힌 적이 있다.

15) 이병근(1970) 과 도수희(1977)는 순음 아래의 ‘ㄱ’이 ‘ㅏ’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보션 > 버

볼 수 있으나 평안도 방언에서는 이러한 두 음운 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같이 설명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다. 이들은 ‘· > ㅏ’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역시 어두 음절에서의 ‘· > ㅏ’ 변화의 예외로 처리된다.¹⁶⁾

7. 제주도 방언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세국어 문헌어의 ‘·’는 16세기 후기에 완성된 비어두 음절에서의 ‘· > ㅓ’ 변화와 18세기 중기에 완성된 어두 음절에서의 ‘· > ㅏ’ 변화 등 두 단계에 걸쳐 비음운화하였다. 이 변화는 중부 방언뿐 아니라 제주도 방언을 제외한 대개의 방언에서 공통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는데¹⁷⁾ 현대 제주도 방언은 이 두 단계의 변화 중 비어두 음절에서의 ‘· > ㅓ’ 변화, 즉 1 단계 합류만을 겪어 어두 음절에 관한 한 중세국어 문헌어의 ‘·’에 대응하는 모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이송녕 1954: 546-548).

1) 비어두 음절

현대 제주도 방언은 15세기 문헌어의 비어두 음절 ‘·’에 대하여 ‘ㅓ’로의 대응을 보이고 있어, 이로부터 제주도 방언에서 비어두 음절의 ‘·’는 대체로 중부 방언과 마찬가지로 ‘ㅓ’로 변화하고 있다. 즉 ‘·’ 음은 비어두 음절에서는 거의 소실 단계에 있다(정승철 1995).

(60) 다르-~달르-(異) < 다르- : 다른 ㅍ ㅎ다가 <두초 3:38>

선, 본도기 > 번데기, 몬져 > 먼져, 몬지 > 먼지, 보리밥 > 버리밥, 포대기 > 퍼대기’ 등이 그것인데 이들의 변화는 주로 순음과 치음간의 변화이다.

16) ‘버리다’에서 ‘· > ㅏ’ 변화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비리다’가 공존하고 있으므로 ‘버리다’는 순음에 의한 ‘· > ㅏ’ 변화를 가진 타방언에서 침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17) 국어의 각 방언의 ‘·’의 변화에 관해서는, 경상도 방언은 최명옥(1982)와 백두현(1989), 전라도 방언은 최전승(1986)과 이기갑(1986), 함경도 방언은 곽충구(1991), 평안도 방언은 최임식(1984)와 최명옥(1987) 참조하길 바란다. 전주지방에서 간행된 고소설과 판소리계 소설을 대상으로 19세기 전라도 방언을 살펴본 최전승(1986)에서는 전라도 방언에서 어두 음절의 ‘·’ 뿐 아니라 비어두 음절의 ‘·’도 ‘· > ㅏ’ 변화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나그네(旅) < 나ㄱ내 : 나ㄱ내 사ㄹ미 <능해 4:77>

하늘(天) < 하늘ㅎ : 하늘해 갯다가 느려와 <석보 6:19>

바람(風) < 바람 : 바람과 무뎌와 <삼강 효:25>

사람(人) < 사ㄹ : 사ㄹ물 기걸ㅎ야 <석보 6:23>

(60)에서 보는 대로 형태소 경계가 인접하여 있든 그렇지 않든 관계 없이 ‘· > 一’ 변화를 보여줄 뿐 아니라 ‘바람, 사람’ 처럼 중부 방언에서 ‘· > ㅏ’ 변화를 보이는 예들도 제주도 방언에서는 규칙적으로 ‘· > 一’ 변화를 보여 준다.

다음은 비어두 음절의 ‘·’가 ‘ㅣ’와 ‘ㅏ’로 변한 예들이다.

(61) 다심머멍(의붓어미) < 다슴어미 : 아비 알오 다슴어미를 내뎡려커늘 <삼강 효:1>

다시리-(治) < 다스리- : 값간 다스리고 <능해 6:85>

모지레-(不足) < 모즈리- : 찻물이 모즈랄씨 <월석 8:92>

(62) ㄱ물(부) < ㄱ물- : 극히 가쁘다 <한청 19>

다문~달문(只) < 다믄 : 다믄 사름으로 <번소 8:5>

스무치-(達) < 스뭏- : 그 모미 안히 스뭏츠면 <능해 9:54>

스뭏(사뭏) < 스뭏 : 光明이 世界를 스뭏 비취샤 <석보 6:18>

(61)은 단일어이든 합성어이든 관계 없이 비어두 음절 ‘· > 一’ 변화 이후 치찰음 아래 ‘一 > ㅣ’ 변화를 겪었음을 보여 준다. (62)는 ‘· > 一’ 변화 이후 순음 아래 ‘一 > ㅏ’의 원순모음화를 겪은 것이다. 이처럼 (60)~(62)는 제주도 방언에서 비어두 음절의 ‘·’가 ‘一’로 변화했음을 보여 준다.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비어두 음절이 ‘·’는 거의 모두 ‘一’로 합류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를 유지하고 있는 예가 보인다.

(63) 느물~느뭏~느물(菜) < 느물ㅎ : 느물홀 글혀 <구간 6:73>

오늘~오닐~오늘(今日) < 오늘 : 어제와 오늘왜 다 하늬 바람 부넛다 <두초 16:60>

베술~베설(창자) < 베술ㅎ : 긴 모드로 모매 박고 베술홀 지지더라 <월석 3:87>

아들~아덜 (子) < 아들18) : 일흠난 아비와 아들왜니 <두초 8:19>

(63)처럼 비어두 음절의 ‘·’가 유지되어 있는 예들은 모두 ‘ㄱ’ 형과 공존하는데 이를 통해서 보면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비어두 음절의 ‘·’는 ‘ㄱ’로 변화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비어두 음절의 ‘·’는 ‘ㄱ’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 방언에서 비어두 음절의 ‘·’는 앞에서 기술했던 대로 ‘· > ㅡ’의 적용을 입어 대부분의 변화를 겪었지만 소수의 형태들은 그 변화의 조류에서 처지게 되어 후에 일어난 다른 방향의 변화, 즉 ‘· > ㄱ’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런 비어두 음절의 ‘· > ㄱ’ 변화는 ‘ㄱ’의 후설화와 관련된 다.

‘· > ㅡ’와 ‘· > ㄱ’는 통시적 변화이지만 전자가 이미 적용이 중지된 변화인 데 반하여 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변화 양상이므로 두 변화는 동일 시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순위를 달리한다. 이 변화들은 일부 예에 한하여 어두 음절에까지 확대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어두 음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 어두 음절

현대 제주도 방언은 대체로 어두 음절에서 중세국어 문헌어의 ‘·’에 대응하는 모음을 유지하고 있다.

(64) ㄱ만(隱) < ㄱ마니 : ㄱ마니 몬 이서 自然히 니러 <석보 6:30>

ㄷ리(橋) < ㄷ리 : ㄷ리 교 橋 <신합 상:18>

ㅁ지(伯) < ㅁ : ㅁ든 나히 열아흠이오 <소해 6:60>

몽생이~몽아지(駒) < ㅁ야지 :머에 아랫 ㅁ야지톨 <두초 3:36>

18) 현평효(1962)에 ‘아들, 아들’이 나타난다. 김완진(1963: 26-27)에 “현대 제주도 방언에 있어서만 하더라도, 오늘날 비어두 음절의 ‘·’가 거의 모두 ‘ㅡ’로 교체되어 버렸으면서도, ‘아들’의 ‘·’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 장차 어느 시기에 가서 어두 음절의 ‘·’들이 비어두 음절의 일반적 변화와 다른 변화를 입게 될 때 ‘아들’의 ‘·’가 그 물결에 휩쓸려 들 것은 거의 틀림없는 일일 것”이라 하여 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 불씨(巳) < 불씨 : 불서홀기 적도다 <두초 7:8>
 살(肉) < 솨 : 그 열구리 솨 지리니 <능엄 9:106>
 줌(眠) < 줌 : 줌 드로미 호마 기프니 <두초 8:28>
 호나~호나(一) < 호나호 : 호나토 잇븐 뜰내리 업더라 <석보 13:34>
 (65) 곶(磨) < 곶- : 흐르는 므레 곶홀 ㄱ다니 <두중 5:36>
 놀-(飛) < 놀- : 놀 비 飛 <신합 상:13>
 못치-(終) < 못- : 글지실 못츠니 <두초 8:8>
 문직-~문죽-(撫) < 문지- : 문질 마 摩 <신합 하:9>
 물르-(乾) < 띻르- : 모기며 입시우리 내 띻라 <석보 9:29>
 솨-(烹) < 솨- : 물애 솨마 <능엄 1:81>
 솨기-(呑) < 솨끼- : 솨씨 누리오라 <구간 6:3>
 좇-(頻) < 좇- : 좇은 나며 갓가뵈며 좇즌 ㅼ디라 <월석 13:47>
 풀-(賣) < 풀- : 불쇠를 자바 풀오 <두초 9>
 호-(爲) < 호- : 호 위 爲 <신합 상:24>
 (66) 슨촌(四寸) < 슨촌 : 모든 슨촌 아으들로 더블어 <소해 6:95>
 즈신(自然) < 즈션히 : 즈션히 나리라 <구간 6:14>
 즈지(紫) < 즈디 : 거믄 너와 즈디 브리 드외느니라 <능엄 5:57>
 츠례(次第) < 츠례 : 열운과 저므니 츠레이시며 <소해 1:9>
 흑개(學堂) > 흑당 : 엇디 흑당의 아니간다 <두초 상:49>

위의 예들은 중세 국어에서 ‘·’를 가졌던 형태가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도 ‘·’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4)는 체언 어간, (65)는 용언 어간, (66)은 차용어의 경우인데 제시되어 있는 대로 제주도 방언의 ‘·’는 선행하는 자음의 음운론적 성격과는 관계 없이 실현된다.

다음은 어두 음절의 ‘·’의 수의적 변화의 예들이다.

- (67) ㄱ~가(邊) < ㄱ¹⁹ : 어딘 일후미 ㄱ 업더니 <변소 8:4>

19) ‘ㄱ, 갓(邊)’ 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 형과 ‘ㅏ’ 형의 공존이 진행 중인 음운변화를 의미한다고 보기보다는 ‘· > ㅏ’ 변화를 입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공존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테면 구형인 ‘·’ 형과 신형인 ‘ㅏ’ 형이 쌍형어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ㅏ’ 형만이

(68) ㅅ-~ㅅㅅ-(包) < ㅅ- : 더미 ㅅ고 <두초 상:28>

ㅍ-~ㅍㅍ-(堀) < ㅍ- : 피무든 ㅍㅍ ㅍ 가져 <월석 1:7>

ㅅㅅ-(低價) < ㅅ- : ㅅㅅㅅㅅ ㅅㅅㅅㅅ <번노 상:8>

(67)과 (68)은 제주도 방언의 단음절 어간에서, 특히 어간 말음으로 ‘·’가 실현되는 경우인데 (67)는 체언 어간, (68)은 용언 어간의 경우이다. 이들은 제주도 방언에서, 다른 방언들의 ‘·’의 변화 방향과 마찬가지로 어두 음절 ‘· > ㅏ’ 변화를 수의적으로 보이고 있는 예들인 데,²⁰⁾ ‘가생이(邊), 까-(剝), ㅅㅅ-(低價), ㅅㅅ-(引)’ 등은 이미 ‘· > ㅏ’ 변화를 겪은 형태로만 실현된다. 현평호(1962)에 이들이 ‘ㄱ-(剝), ㅅㅅ-(低價), ㅅㅅ-(引)’가 수의적 교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68)은 세대차에 의한 변화를 겪은 듯하다. 이로부터 어두 음절에서 어간말 ‘·’는 ‘ㅏ’로 변화한다는 규칙을²¹⁾ 세워볼 수 있다.

이제까지 제주도 방언은 어두 음절에 관한 한 중세 국어 문헌어의 ‘·’에 대응하는 모음을 유지하고 있으며 젊은층에서는 ‘· > ㅏ’를 보여주는 중부 방언의 변화 방향과는 달리 모든 환경의 ‘·’가 ‘ㅏ’에 합류되는 것으로(현평호 1971: 378-376; 1988: 13) 언급되어 왔지만 (67), (68)은 일부 환경에서 노인층에서도 ‘·’의 동요가 있어 ‘· > ㅏ’ 변화를 겪기도 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²²⁾

제주도 방언에서 어두 음절의 ‘·’가 ‘· > ㅏ’ 변화만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69) ㅎ~ㅎ(土) < ㅎ : 長安ㅅ 슷ㅅ비에 열ㅎ즌ㅎ기 <두초 8:27>

ㅅ~ㅅ(狸) < ㅅ : 여ㅅ와 ㅅㅅㅅ는 ㅅㅅ <두초 8:12>

ㅅ(件) < ㅅ : ㅅㅅ ㅅㅅ <두초 9:25>

나타나는 ‘가생이(邊)’가 이를 증명해 준다.

20) 小倉進平(1944)에는 규칙 ‘· > ㅏ’가 존재했었음을 알려주는 ‘차다(鹹) 카다(燒)’가 나타나는데 이처럼 ‘·’ 형으로만 보고된 것은 수의적 교체형을 무시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21) 여기서의 규칙은 통시적 규칙을 가리키며 엄밀한 의미에서의 법칙(law)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규칙성(regularity)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22) 이들 단어들은 젊은층에서도 ‘· > ㅏ’ 변화를 모른다. 이는 이 예들이 젊은층에서 이미 ‘· > ㅏ’ 변화를 겪은 형태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물론 일부 젊은층 화자들에게서는 이 단어들을 ‘· > ㅏ’ 변화를 겪은 형태로 발화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혹, 숙’은 어두 음절의 ‘·’를 가졌던 단어가 예외적으로 비어두 음절의 ‘· > ㅡ’ 변화 물결에 포함된 것인데 이러한 예외적 변화는 그 원인이 음절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 시기에 있는 것(김완진, 1963: 26-27)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들이 ‘· > ㅡ’ 변화를 겪던 시기에는 어두 음절의 ‘·’는 동요를 몰랐지만 어두 음절의 ‘·’라 하더라도 이 때에 침범 당한 것은 비어두 음절의 그것과 동일한 변화를 입었다.

‘식(狸)’은 ‘· > ㅡ’ 변화 이후 치찰음 아래에서 ‘ㅡ > ㅍ’ 변화(정승철, 1988: 52-54)를 겪었으며 ‘불(件)’은 어두 음절 ‘· > ㅡ’ 변화를 겪은 후에 순음 아래에서 ‘ㅡ > ㅍ’의 원순모음화를 겪은 것이다.

제주도 방언에서도 어두 음절 ‘·’가 ‘ㅍ’로 변화한 예들이 나타난다.²³⁾

(70) 버리- < ㅍ리- : 내것 ㅍ려 恩惠 주미 <석보 13:39>

허-~ㅎ-(爲) < ㅎ- : 白日이 올마가드록 ㅎ시란디 <두초 2:7>

턱~턱(顎) < ㅍ : 사르미 ㅍ굴 글회여 즐겨 웃게 ㅎ느니 <두초 8:4>

‘버리-’는 어두 음절의 ‘·’가 비어두 음절의 일반적인 변화인 ‘· > ㅡ’ 변화에는 동요하지 않았으면서 후속된 변화인 비어두 음절의 ‘· > ㅍ’ 변화의 물결에는 먼저 휩쓸리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현평효(1962)에는 ‘ㅍ리-’와 ‘버리-’가 모두 나타나는데 이러한 차이는 세대차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허-(爲)’는 어간말 위치에서 일어난 어두 음절 ‘· > ㅍ’ 변화를 거부하고 비어두 음절 ‘· > ㅍ’ 변화의 물결에 휩쓸린 것이다. 이는 비어두 음절의 ‘· > ㅍ’ 변화와 어두 음절에서의 ‘· > ㅍ’ 변화가 같은 시기에 공존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턱’은 ‘ㅍ’과 공존하는 것으로, 小倉進平(1944)에 ‘ㅍ, ㅍ’으로 현평효(1962)에는 ‘ㅍ’으로만 나타난다. 이것을 현평효(1962)에

23) 김완진(1978: 132-134)에 따르면 대체로 이들은 문헌어에서 어두 음절 ‘· > ㅍ’ 변화의 물결에 저항하여 오랫동안 ‘·’를 유지하다가 다음 단계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 > ㅍ’라는 제3의 길을 걷게 된 예들이다. 이 논문에서는 ‘· > ㅍ’ 변화의 예가 ‘· > ㅍ’의 2단계 합류가 완성된 이후인 18세기 후기에 출현한다는 점에서 ‘· > ㅍ’ 변화의 말기적 증상으로 ‘· > ㅍ’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면서 모음 ‘ㅍ’의 후설화 추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곽충구(1980: 81-84)에는 18세기 문헌어에 나타나는 ‘· > ㅍ’의 예 ‘대즈더려, 혼걸ㄴ치, 두벌, 거트니는, 버려도, 일커로디, 허물며’ 등과 19세기 문헌어에 나타나는 ‘· > ㅍ’의 예 ‘맛당현’이 제시되어 있다.

‘브리-’와 ‘버리-’가 모두 나타나는 ‘버리-’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 > ㅏ’ 변화를 입은 ‘턱’은 중부 방언의 영향에 의한 세대차를 보여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의 접미사들은 변화의 조건이 일치하는 경우에도 어기의 경우와 상이한 변화를 겪기도 한다.

(71) -덜(等) < -들²⁴⁾ : 百姓들 一千 사름미 <월석 2:76>

-꺼지~ㄱ지~ㄱ장(至) < -ㄱ장 : 게으른 ㅸ디 ㄱ장 기도다 <두초 7:6>

(71)은 독립적으로 표면에 나타날 수 없는 접미사의 경우로 언제나 비어두 음절에서만 출현한다. 그렇다고 비어두 음절의 ‘·’의 변화를 겪어 ‘· > ㅏ’ 변화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 위의 ‘-덜(等), -꺼지(至)’는 비어두 음절 ‘· > ㅏ’ 변화를 겪지 않고 ‘· > ㅏ’ 변화에는 먼저 휩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그 변화 시기에 기인하는 것이다.

다음은 ‘· > ㅏ’ 변화의 예들이다.

(72) 놈(他) < 놈 : 놈미 그에 브터 사로더 <석보 6:5>

(73) 졸-(眠) < 즈울- : 시러곰 조오더니라 <두초 5:39>

홀(單) < 호울 : 호울 鶴이 어ㅣ어 혼번 소리호니라 <두초 4:38>

훗(單) < 호웃 : 獨은 늘구더 子息업서 호웃모민 사름미라 <석보 6:13>

(74) 소나이~스나이(男兒) < 스나히 : 우리 더기 스나히는 <번노 상:33>

(72)의 ‘놈(他)’은 후행하는 순음의 영향으로 ‘· > ㅏ’ 변화를 보인다. 이는 ‘늬, 남’으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늬’은 ‘· > ㅏ’ 변화를 겪은 것이고 ‘남’은 ‘· > ㅏ’ 변화를 겪은 것이다. (73)은 후행하는 원순 모음 ‘ㅏ’의 영향으로 ‘· > ㅏ’ 변화를 보인다.²⁵⁾ (74)의 ‘소나이(男兒)’는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기 어려우나 젊은층의 제주도 방언화

24) 小倉進平(1944)에는 ‘들, 들, 덜’로 나타난다.

25) 이들은 ‘·’의 탈락을 겪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세국어 문헌어의 ‘ㄱ울(고울), 고울, 고울, 고울’을 고려할 때 ‘· > ㅏ’ 변화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이렇게 보면 (73)의 예들은 ‘ㅏ > ·’의 이화를 겪은 이후 후행하는 모음 ‘·’의 탈락을 겪은 것이 된다.

자에게서만 나타나는 ‘· > ㅓ’ 변화를 노인층에서 가장 먼저 보여주는 예이다. 이 형태에 대해서 小倉進平(1944)에는 ‘스나이, 사나이’로 나타나며 석주명(1947)에는 ‘스나이, 스내’로 나타난다. 하지만 박용후(1960)에는 ‘남소나, 소나, 소나이’ 등이 보고되어 있는데 이는 제주도 방언에 나타나는 ‘· > ㅓ’ 변화를 보여주는 최초의 보고이다. 현평효(1966: 232-233)에는, 극히 드물지만 연소층의 발화에서 들을 수 있는 ‘·’와 ‘ㅓ’의 교체를 보이는 예로 제시되어 있다.²⁶⁾ 왜 이 단어만 노인층에서도 ‘· > ㅓ’ 변화를 보여주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이것은 이미 이 방언에서 ‘· > ㅓ’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26) 중부 방언의 ‘조르-(<조르 : 능해)’는 ‘· > ㅓ’ 변화를 겪은 것으로 여겨지는 예이다. 제주도 방언에서는 ‘즈라메-(졸라매다)’로 나타난다.

Ⅲ. ‘·’의 소실과 방언 분화 양상

1. ‘· > ㅓ’형의 분포

지금까지 방언에서의 ‘·’의 통시적 변화 양상을 비교·검토해 본 결과 ‘·’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다양한 모음으로 합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가운데 음절 위치에 상관 없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변화 양상으로 ‘· > ㅓ’를 들 수 있다. 또한 ‘· < ㅓ’형은 순자음에 의한 원순모음화 현상과 원순모음에 의한 동화 작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원순모음화에 의한 ‘· > ㅓ’형의 분포

원순모음화는 피동화 모음의 종류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순자음 뒤의 ‘- > ㅓ’ 현상과, 같은 환경에서의 ‘· > ㅓ’ 현상이 그것이다. 원순모음화 ‘- > ㅓ’는 국어의 모든 방언에 일어난 일반적인 변화였지만, ‘· > ㅓ’는 제한된 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으로서 그 양상이 서로 다르다. 이 절에서는 원순모음화 ‘· > ㅓ’가 적용된 주요 어휘들의 분포를 표로 나타냄으로써 이 변화의 지역적 분포를 밝히고자 한다.

지금까지 원순모음화 현상 ‘· > ㅓ’ 현상은 주로 남부 방언 그것도 남해안의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하고, 북부 방언의 극소수 지역에서만 분포되어 있다고 인식된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이러한 변화의 분포가 남부의 해안 지방뿐 아니라 내륙 지방에서도 일어났으며 북부 방언의 다수 지역에도 나타남을 확인하여 ‘· > ㅓ’ 변화가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일어났던 주요 변화임을 밝힐 수 있었다. 나아가 ‘· > ㅓ’ 변화가 일어난 방언과 그렇지 않은 방언간의 차이에 주목하고 분포 지역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우리는 II장을 통해 순음 뒤에 ‘·’를 가졌던 어휘들의 ‘·’가 여러 방언에서 ‘ㅓ’

로 반사된 양상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경상도 방언에서 북부 동남방언에서는 ‘팠, 파리/파랭이, 맑-, 났-’으로 실현되나 남부 동남 방언 가운데 통영·거제·남해 등지에서는 ‘폴, 포리/포랭이, 물-, 났-’으로 실현되어 양순음 뒤에서 ‘· > ㄴ’ 변화 규칙을 적용 받았다. ‘빨쥐’는 황해도의 서부지역에 많이 존재하고, 경북 내륙의 여러 지역에도 이 어형이 출현한다.

남부 전남은 이웃한 양순음에 동화되어 ‘· > ㄴ’ 변화를 보이며 이러한 방언 현상은 경상도 및 함경도 방언과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이와 같은 예로 ‘포리, 폴, 폴, 물다, 붉다, 났다, 빨다, 포도시, 포래, 보른다, 폴다, 모실, 뽀순다, 몬친다’ 등의 어휘가 보인다. 전북의 경우는 전남 지방에 인접하여 있는 남원, 정읍에 국한되어 있다. 그리고 전북 임실과 김제는 어휘에 따라서 ‘ㅌ’와 ‘ㄴ’ 두 가지 발음이 공존한다 하였다.

함경도 방언에서도 순자음 아래에서 ‘·’가 ‘ㄴ’로 변화한 원순모음화 현상이 있다. 함남 북부의 압록강 주변에 위치한 삼수·갑산·해산 및 육진 방언권에 속하는 함북 북부 두만강변의 회령·종성·온성 지역어에서 이 음운 변화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어휘에는 ‘보름(바람), 불써(벌써), 불(벌), 났-(났다), 폴(팠), 물(말), 빨다(빨다), 폴다(팠다), 포리(파리), 보루다(바르다)’ 등이 있으며, ‘났-’ 따위는 함경도의 넓은 지역에 분포한다. 이 중 ‘불’의 분포에 나타난 특징을 통해 원순화 ‘· > ㄴ’가 평안북도에도 존재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각 도별로 ‘· > ㄴ’를 겪은 형의 출현 여부를 ○, ×로 표시하여 도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포리’는 ‘퍼리’형을 포함하며, ‘물리다’는 ‘모리다’(裁)까지 포함한다. ‘모실’은 ‘몰:’도 포함한다).

이 표의 ○,×는 모든 경우에 동질적인 것이 아니다. 전남과 경남의 ○는 각 도의 대부분 지역을 뜻하지만 전북의 ○는 주로 전북 남부 지역을 뜻한다. 함북의 ○는 주로 육진 지역을 뜻하고, 경북의 ○는 소수 지역에 한정된다.

<표 2> 원순모음화에 의한 ‘·>ㅏ’ 형의 분포

	전남	경남	전북	함북	함남	경북	평북	평남	황해	경기	충남	충북
포리	○	○	○	○	○	×	×	×	×	×	○	○
폴	○	○	○	○	×	×	×	×	×	×	×	×
폴	○	○	○	○	○	○	×	×	×	×	×	×
몰	○	○	○	○	○	×	×	×	×	×	×	×
빨쥐	○	○	○	○	×	○	×	×	○	×	×	×
불	○	○	○	○	×	○	○	×	×	×	×	×
모실	○	○	○	○	○	×	○	×	○	×	×	×
몬	○	○	×	○	×	×	×	×	×	×	×	×
폴-	○	○	×	○	×	×	×	×	×	×	×	×
붉-	○	○	○	○	×	×	×	×	×	×	×	×
보르-	○	○	○	○	×	○	×	×	×	×	×	×
몰리-	○	○	○	×	○	×	×	×	×	×	×	×
몬지-	○	○	×	×	×	×	×	×	×	×	×	×
빨-	○	○	×	×	×	×	×	×	×	×	×	×
몫-	○	○	×	○	×	×	×	×	×	×	×	×
붉-	○	○	○	○	×	×	×	×	×	×	×	×
불씨	○	○	○	○	×	×	○	×	×	×	×	×
눔	○	○	○	×	×	×	○	○	×	×	×	×

이들 어휘 중, 특히 ‘포리, 폴, 폴, 몰’의 분포는 서로 비슷하게 나타남이 주목된다. 이 네 항목의 분포 상태는 원순모음화 ‘·>ㅏ’의 전형적인 분포 지역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원순모음화 ‘·>ㅏ’의 중심 지역은 전남과 경남 및 함북의 육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북의 내륙 지방,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에 나타나는 이 변화의 존재도 무시 못할 세력을 갖고 있는데, 이 지역들은 ‘·>ㅏ’라는 규칙의 변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지역들은 어두 음절에서의 일반적인 변화 ‘·>ㅏ’의 영향력으로 ‘·>ㅏ’를 적용 받는 어형이 축출 당했던 과거를 잘 반영하고 있

다. 정치적, 문화적으로 우월성을 띠고 다른 방언들에 영향을 미친 중부 방언의 어형(‘· > ㅏ’를 겪은 ‘과리’ 등)의 세력에 밀려 이 지역들은 몇몇 낱말에서만 ‘· > ㅏ’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위의 분포표에서 알아낼 수 있다.

국어의 방언권을 ‘· > ㅏ’ 방언(원순모음화 ‘· > ㅏ’가 일어난 방언)과 비 ‘· > ㅏ’ 방언(원순모음화 ‘· > ㅏ’가 일어나지 않은 방언)으로 대분(大分)할 때, 비 ‘· > ㅏ’ 방언권은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이고, ‘· > ㅏ’ 방언권은 전남, 경남, 함경도 등과 같은 변경의 오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원순모음화 ‘· > ㅏ’는 원순모음화 ‘- > ㅏ’ 보다 시기적으로 늦게 일어났으며 특히 중부 방언에서 ‘· > ㅏ’는 17세기 후기 비어두 환경에 미약하게 존재했으나 더 이상 확대 발전되지 못하였다.²⁷⁾ 이런 상태에서 ‘·’의 제2 단계 변화 ‘· > ㅏ’가 적용되어 ‘포리’와 같은 ‘· > ㅏ’ 형이 중부 방언에서는 출현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백두현(1992)에서는 ‘· > ㅏ’ 방언과 비 ‘· > ㅏ’ 방언간에 나타난 차이는 원순모음화라는 변화가 방언에 따라 적용 대상과 적용 영역을 달리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2) 동화 작용에 의한 ‘· > ㅏ’ 형의 분포

순자음에 의한 원순모음화는 아니지만 인접 모음에 의한 동화 작용으로 ‘·’가 ‘ㅏ’로 변화한 것도 있다. 즉 인접 모음 ‘ㅏ’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이미 16세기 문헌에 격조사 ‘-으로 > -오로’와 어미 ‘-도록 > -도록’의 변화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며, 이 중 ‘-도록’은 오늘날 완전히 고정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모로다, 노로, 보야호로’와 같은 예를 확인할 수 있다. 이기문(1978)에서는 이것을 ‘ㅏ’가 인접해 있을 때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의 제1 단계 변화의 특수한 유형으로 설명한다.

오늘날 평안도 방언에서는 순음에 의한 ‘· > ㅏ’의 원순모음화를 경험하지 않았

27) ‘· > ㅏ’ 방언권에서는 ‘· > ㅏ’는 모든 환경에 적용되었고, ‘· > ㅏ’는 순자음 뒤의 ‘·’에는 적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 > ㅏ’와 적용 환경상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 ‘· > ㅏ’가 이루어지지 않은 방언권에서는 이러한 상보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 대신에 순자음의 음절 두음과는 상관없이 어두 음절의 ‘·’가 ‘ㄱ’로 변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논우다(分), 호울노(獮), 도투다(爭)’와 같은 단어가 역사적으로 어두 음절의 ‘·’ 모음을 가지고 있어 후행하는 ‘ㄱ’ 모음의 원순성에 의한 동화 작용으로 ‘· > ㄱ’로 변환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현상은 제주도 방언에서도 확인된다. ‘졸다(眠), 홀(單), 훗(單)’ 등이 그것인데, 이 단어들은 중세 문헌에 각각 ‘즈울, 호울, 호웃’으로 기록되어 ‘·’는 후행하는 원순 모음 ‘ㄱ’의 영향으로 ‘· > ㄱ’ 변화를 보이고 있다.

2. 모음 체계 변화로 인한 ‘· > ㄱ’ 형의 분포

18세기의 후반에 들어서면 ‘· > ㄱ’ 변화를 보인 예가 다수 발견된다. 종래 ‘· > ㅏ’ 변화에 가려서 ‘· > ㄱ’로의 변화는 ‘·’ 부분적인 동요 정도로 간주해 버렸다. 하지만 이것은 모음 체계 내부의 음운 추이에 대한 관점에서 설명해야 한다. 앞에서 적어도 18세기 중엽에는 ‘·’의 비음운화가 종결되었을 것임을 언명하였는데, ‘· > ㄱ’ 예들은 모두가 18세기 후기의 문헌들에서만 보여진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김완진(1978)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 > ㅏ’ 변화의 말기적 증상으로서 ‘· > ㄱ’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그 자신의 위치를 집요하게 고수하고 있던 ‘·’의 자리를 인접한 다른 모음, ‘ㅏ’가 차지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곧 ‘ㅏ’의 후설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모음 체계의 변화로 인한 ‘· > ㄱ’ 변화는 지역 방언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 ㄱ’ 방언 분화의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모음 체계 변화로 인한 ‘· > ㅏ’ 형의 분포

	전북	충남	제주	전남	평북	평남	경남	경북	함남	함북	경기	충북
너물	○	○	×	○	×	×	○	×	×	×	×	×
넘	○	○	×	○	○	×	○	○	×	×	×	×
퍼리	○	○	×	○	×	×	○	×	×	×	×	×
오닐	×	×	○	×	×	×	×	×	×	×	×	×
퍼래	×	×	×	○	×	×	×	×	×	×	×	×
-허다	○	○	○	×	○	×	×	×	×	×	×	×
-덜	×	×	○	×	○	○	×	×	×	×	×	×
-꺼지	×	×	○	×	×	○	×	×	×	×	×	×

‘나물, 남’의 경우를 보면 이 낱말은 전라도 지역에서 남북의 분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너물’ 형은 북부뿐 아니라 동부에도 분포하여 서남부의 ‘노물’과 대립하고 있다. ‘남(他人)’은 이 지역에서 ‘놈, 념’ 두 어형으로 실현된다. ‘하다(爲)’의 경우도 전라도 지역에서 ‘허-’와 ‘하-’의 두 방언형을 갖는다. 그 분포는 ‘허-’가 동북부에, ‘하-’가 남부에 나타나 ‘나물’의 경우와 비슷하다. 지금까지 논의한 예를 통해, 전라도 북부에서 ‘· > ㅏ’(또는 ‘· > ㅑ’) 변화가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충청도 방언에서도 중세어에 ‘·’로 기록된 것이 ‘ㅏ’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넘(남), 너물(나물), 퍼리(파리), 널-(날다), -허다(-하다)’ 등이 그것이다. 함경도 지역의 ‘말더리(들(복수접미사), 말(馬)들-을), (선데) 꺼지(까지(至), 서(立)-ㄴ 데까지)’ 등의 예는 ‘· > ㅏ’의 특이한 변화에 속한다. 경상도 방언에서도 남부에서 ‘넘(他人), 너물, 퍼리’ 형이 보인다.

평안도 방언에서는 특이하게 비어두 음절의 ‘·’가 ‘ㅏ’로 변화한 ‘한걸(한걸), 일컷-(일컫다)’의 예가 보이고, 어두 음절의 변화로 ‘버리-’가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 중부 방언에서도 나타나는데 ‘· > ㅏ’ 형이 오늘날 표준어로 굳어진 예들이다.

제주도 방언의 경우, ‘늑물~늑말~늑물(나물), 오늘~오닐~오늘(今日), 베술~베설(창자), 아들~아덜(子), 애들--~애덜-(애달프다), 다물~다말(밤에 그 위치에 따

라 시각을 짐작케 하는 별자리), 따몰-~따덜-~따뭉-(남에게 무엇을 해내라고 재촉하다), 모뭉~모덜(매밀)' 등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비어두 음절 ‘·’가 유지되어 있는 예들은 모두 ‘ㅓ’ 형과 공존하는데 이를 통해서 보면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비어두 음절의 ‘·’는 ‘ㅓ’로 변화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 방언에서 비어두 음절의 ‘·’는 대부분 ‘· > ㅓ’ 변화를 겪었지만 소수의 형태들은 그 변화의 조류에서 처지게 되어 후에 일어난 다른 방향의 변화, 즉, ‘· > ㅓ’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런 비어두 음절의 ‘· > ㅓ’ 변화는 ‘ㅓ’의 후설화와 관련된다. 또한 ‘버리-, 허-, 턱-’은 제주도 방언에서 어두 음절에서 ‘· > ㅓ’ 변화를 보이는 예들이다.

3. 비어두 음절에서 ‘· > ㅓ’ 형의 분포

중부 방언에서 비어두 음절 ‘·’의 일반적인 변화와 다른 양상으로 ‘· > ㅓ’를 보이는 것도 있다. ‘바람, 바다, 사람, 가만히’ 등의 경우인데, 이것은 주로 선행 모음이 ‘·’인 경우에 후행 모음 ‘·’가 ‘ㅓ’로 변하여 오늘날 표준어로 굳혀졌다. 하지만 중부 방언에서 ‘· > ㅓ’ 변화를 보이는 예들도 일부 방언에서는 규칙적으로 ‘· > ㅓ’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제주도 방언에서 ‘사람(人)’, 함경도 방언에서 ‘바람(風)’이 그러하다.

비어두 음절의 ‘· > ㅓ’ 변화는 경상도, 전라도, 평안도 방언의 몇몇 단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같은 예를 표로 나타내 분포 양상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비어두 음절에서 ‘· > ㅏ’ 형의 분포

	전남	전북	경남	경북	평남	평북	함남	함북	충남	충북
반다시	○	×	○	○	×	×	○	×	×	×
하날	○	×	○	○	×	×	×	×	×	×
야달	○	×	×	×	×	○	×	×	×	×
나가네	×	×	×	×	○	○	×	×	×	×
오날	○	×	○	×	×	×	×	×	×	×
메나리	○	×	×	×	×	×	×	×	×	×
아람	○	×	×	×	×	×	×	×	×	×
갈차다	○	×	○	×	×	×	×	×	×	×
거나리-	○	×	×	×	×	×	×	×	×	×

경상도 방언은 ‘하날(할:)(天), 오날(올:)(今日), 아아래(아:래)(九日), 바알(밭:)(針), 마안(만:), 아안(안:)(九十), 반다시(必), 갈차다(敎·指)’ 등에서 중부 방언에서 비어두 음절의 ‘· > ㅡ’ 변화를 보인 것들이 ‘· > ㅏ’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라도 방언에서도 일반적인 변화에서 벗어나 어두 음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어두 음절에서도 ‘· > ㅏ’ 변화를 보인다. 예를 들면, ‘말삼(言), 오날(今日), 하날(天), 가삼(心), 아달(子), 메나리(婦), 반다시(必), 아람(아름), 야달(八)’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예들은 국어사에서 16세기에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 > ㅡ’ 변화의 방사가 중앙어에서 전라도 방언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근대 국어에 들어와서 ‘·’의 2단계 변화에 참여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즉 비어두 음절에서의 ‘·’라 하더라도 ‘·’의 2단계 변화 시기에 적용되는 어휘들은 ‘· > ㅏ’ 변화를 따른 것이다.

평안도 방언에서도 이같은 ‘나가네, 반다시’의 예들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선행 모음에 주로 ‘ㅏ’를 가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그래서 이것을 선행 모음에 의한 동화작용으로 볼 수도 있다.

4. 과도기적 변화

일반적으로 ‘·’의 1 단계 변화는 비어두 음절에서 ‘—’로, 2 단계 변화는 어두 음절에서 ‘ㅏ’로 변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아직 제2 단계의 변화가 시작되기 전 16세기 말, 17세기 초 문헌에 어두 음절 ‘·’의 변화의 예로 ‘흙’과 ‘소매’가 보인다. 이들은 제1 단계 변화와 제2 단계 변화의 과도기에 나타난 어두 음절 ‘·’의 예외적 변화이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김완진(1971)은 어두 음절에서의 ‘·’의 소실 과정 초기에 ‘· > —’의 잔재 세력이 제2 단계 변화 시기에 밀려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적 변화는 그 원인이 음절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 시기에 있는 것(김완진 1963:26-27)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제2 단계 변화의 ‘· > ㅏ’와는 달리 변하기는 하였으나, 어두 음절의 ‘·’의 최초의 변화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소매’는 ‘·’의 일반적인 규칙을 거스르고 있는 예외적 용례로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다만, 고립 방언의 성격을 띠고 있는 함경도 방언에서만은 ‘사매’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어두 음절의 ‘· > ㅏ’ 예외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주도 방언에서 ‘스미’는 아직 변화를 입지 않고 있다.

어두 음절에서 ‘· > —’ 변화를 겪는 유일한 용례는 ‘흙’이다. ‘흙’은 17세기 국어에 자주 출현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어두 음절의 변화 ‘· > ㅏ’와 그 양상을 달리한다. 이는 제1 단계 ‘·’음이 변화가 강하게 작용하던 시기에 특이하게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제1 단계와 제2 단계의 과도적 변천을 피한 것이다. 이것은 중부 방언에서뿐만 아니라, 경상도, 평안도, 함경도 방언에서도 나타나 어두 음절 ‘·’ 변화의 예외로 남게 된다. 하지만 함경도 하위 방언권으로 경원, 온성, 회령, 종성에서는 ‘흙’으로 나타나 이 마저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제주도 방언에서도 ‘흙’과 ‘숙(삶)’이 이 여파를 입었음은 흥미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여러 방언에서 ‘·’의 통시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모음 ‘·’는 일반적으로 비어두 음절에서 ‘· > ㅡ’로, 어두 음절에서 ‘· > ㅏ’로 변하였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방언에서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모음 ‘·’가 일반적인 두 단계의 변화 외에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음운론적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 > ㅏ’ 변화이다. 이것은 순자음에 의한 원순모음화 현상과 인접한 ‘ㅏ’ 모음에 의한 동화 작용에 의한 변화로 설명된다.

먼저, 가장 광범위하게 일어난 원순모음화 ‘· > ㅏ’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이 변화의 분포가 남부의 해안 지방뿐 아니라 내륙 지방에서도 일어났으며 북부 방언의 다수 지역에도 나타남을 확인하여 ‘· > ㅏ’ 변화가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일어났던 주요 변화임을 밝힐 수 있었다. 원순모음화 ‘· > ㅏ’의 중심 지역은 전남과 경남, 그리고 함북의 육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북의 내륙 지방,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에 나타나는 이 변화의 존재도 무시 못할 세력을 갖고 있었다.

순자음에 의한 원순모음화는 아니지만 인접 모음 ‘ㅏ’의 원순성에 의한 동화 작용에 의하여 ‘·’가 ‘ㅏ’로 변화한 것도 있다. 이것은 ‘ㅏ’가 인접해 있을 때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평안도와 제주도 방언의 몇몇 단어에만 그 영향을 미쳤다.

둘째, 18세기 후반 이후에 나타나는 ‘· > ㅓ’ 변화이다. 이것은 ‘· > ㅏ’ 변화의 말기적 증상으로서 ‘· > ㅏ’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있던 ‘·’가 ‘ㅓ’의 후설화로 인해 그 자리를 빼앗긴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변화는 충청도 방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전라도 북부 지역과 경상남도 및 평안도 방언에서 일부 보인다. 또한 제주도 방언의 경우, 비어두 음절의 ‘·’가 유지되어 있는 예들은 모두 ‘ㅓ’ 형과 공존하는데 이를 통해서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비어두 음절의 ‘·’는 ‘ㅓ’로 변화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비어두 음절에서의 ‘· > ㅑ’ 변화이다. 이들 중에는 선행 모음에 주로 ‘ㅑ’를

가지고 있어 이것을 선행 모음에 의한 동화 작용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국어사에서 16세기에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 > ㅡ’ 변화의 방사가 중앙어에서 방언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가, 근대 국어에 들어와서 ‘·’의 2 단계 변화에 참여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즉 비어두 음절에서의 ‘·’ 라 하더라도 ‘·’ 2단계 변화 시기에 적용되는 어휘들은 ‘· > ㅏ’ 변화를 따른 것이다. 이 변화는 경상도, 전라도 즉 남부 방언에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어두 음절 ‘·’ 변화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흙’과 ‘소매’가 있다. 이들은 제2 단계 변화의 ‘· > ㅏ’와 달리 변하기는 하였으나, 어두 음절 ‘·’의 최초의 변화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단어들도 고립 방언의 성격을 띤 함경도 방언권에서는 그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참 고 문 헌

- 강길운(1993), 『국어사정설』, 형설출판사.
- 강희숙(1999), 「전설모음화의 발달과 방언 분화 - 전남방언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학회.
- 곽충구(1980), 「18세기 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43.
- _____ (1994), 『함북 육진 방언의 음운론』, 국어학총서20, 태학사.
- _____ (1998), 「동북방언」, 『새국어생활』 8-4.
- 기세관(1985), 「중부방언과 전남방언의 모음대응에 대한 통시적 고찰」, 『논문집』 (인문사회과학 편)4. 순천대.
- 김민수(1999), 『현대의 국어연구사』, 박이정.
- 김병제(1995), 『방언사전』, 한국문화사.
- 김성렬(1987), 『국어방언연구』, 국학자료원.
- 김영배(1984), 『평안방언연구』, 동국대출판부.
- _____ (1997), 『평안방언연구』 (자료편), 태학사.
- 김영태(1981), 「‘·’와 경남방언」, 『송천 김용태 선생 회갑기념 논문집』.
- 김완진(1963), 「국어 모음 체계의 신고찰」, 『진단학보』 24.
- 김이협(1981), 『평북방언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주원(1984), 「18세기 경상도방언의 음운현상 - 몇몇 불서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6.
- 김철웅(1998), 『충북방언의 역사적 연구』, 보고서.
- 남광우(1997), 『고어사전』, 교학사.
- 도수희(1987), 「충청도 방언의 특징과 그 연구」, 『국어생활』 8. 국어연구소.
- 류영남(1982), 「남해도방언의 음운연구」, 부산대학교육대학원.
- 박종희(2000), 「원순모음화 현상의 음운사적 연구」, 국어국문학.
- 방언연구회(2001), 『방언학사전』, 태학사.
- 백두현(1988), 「‘으,오,으,우’의 대립관계와 원순모음화」, 『국어학』 17.
- _____ (1989), 「영남문헌어의 통시적 음운연구」, 박사논문(경북대).
- _____ (1992), 「원순모음화 · >ㄱ형의 분포와 통시성」, 『국어학』 22.
- 백웅진(1999), 『한국어역사음운론』, 박이정.
- 성낙수(2000), 『우리말 방언학』, 한국문화사.
- 송민(1985), 『전기 근대국어음운론 연구』, 탑출판사.
- 유창돈(1992), 『이조어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기갑(1984), 「동부전남방언의 성격」, 『언어학』 7. 한국언어학회.
 _____(1986), 『전라남도의 언어지리』, 국어학총서11, 탑출판사.
- 이기갑, 고광모, 기세관, 정제문, 송하진(1998), 『전남방언사전』, 태학사.
- 이기문(1959), 『16세기 국어의 연구』, 한국연구원.
 _____(1968), 『모음 조화와 모음 체계』, 을유문화사.
 _____(1972), 『국어음운사연구』, 탑출판사.
 _____(1977), 「제주도방언의 ‘·’에 관련된 몇 문제」, 『이송녕 선생 고회기념 국어국문학논문집』, 탑출판사.
 _____(1998), 『국어사개설』, 태학사.
- 이돈주(1987), 「전남 방언의 특징과 그 연구」, 『국어생활』 8. 국어연구소.
- 이상규(2000), 『경북방언사전』, 태학사.
- 이송녕(1954), 『국어음운론연구 제 1집 ‘·’음고』, 을유문화사.
 _____(1977), 「/·/음 소실기 추정에 대하여」, 『학술원 논문집』 16.
 _____(1981), 『중세국어문법 - 15세기를 주로 하여 -』, 을유문화사.
- 이승재(1977), 「남부방언의 원순모음화와 모음체계 - 구례지역어의 ‘· > ㅓ’를 중심으로 -」, 『관악어문연구소』 2.(서울대 국어국문학과)
 _____(1987), 「전북 방언의 연구와 특징에 대하여」, 『국어생활』 8. 국어연구소.
- 이원직(1995), 「충남 방언 연구 - 충남서부방언의 모음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어학의 이해와 전망』, 박이정.
- 이익섭(1984), 『방언학』, 민음사.
 _____(1986), 『국어학개설』, 학연사.
- 장영길(1994), 『15세기 국어음운체계연구』, 홍문각.
- 전광현(1967), 「17세기 국어의 연구」, 『국어연구』.
 _____(1971), 「18세기 후기 국어의 일고찰」, 전북대
 _____(1979), 「경남함양지역어의 음운론적 고찰」, 『동양학』 9.(단국대)
 _____(1983), 「온명서록과 정읍 지역어」, 『국어학논집』 11.
- 정승철(1995), 『제주방언의 통시음운론』, 태학사.
- 최명옥(1980), 『경북 동해안방언 연구』, 민족문화총서4. 영남대출판부.
 _____(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출판부.
 _____(1985), 「19세기 후기 서북방언의 음운론」, 『인문연구』 7(영남대).
 _____(1987), 「평북 의주지역어의 통시음운론」, 『어학연구』 23-1(서울대).
 _____(1998), 『한국어방언연구의 실제』, 태학사.
- 최명옥, 곽충구, 배주채, 전학석(2002), 『함북 북부 지역어 연구』, 태학사.
- 최임식(1984), 「19세기 후기 서북방언의 모음체계」, 박사논문(계명대).

- _____ (1991), 「19세기 후기 남부방언의 표기와 음운현상」, 『계명어문학』 6(계명대).
- 최전승(1986),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한신문화사.
- _____ (1989), 「비어두음절 모음‘·’의 변화의 공간적 차원과 철자식 발음에 대하여」, 『이용주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한샘출판사.
- _____ (1995), 『한국어방언사연구』, 태학사.
- _____ (1999), 「원순모음화 현상의 내적 발달과 개별 방언 어휘적 특질」, 『국어문학』 34. 국어문학회.
- 최학근(1976), 「전라도 방언 연구」, 『국어국문학』 70. 국어국문학회.
- _____ (1988), 『한국방언학』, 보경문화사.
- _____ (1991), 『국어방언연구』, 명문당.
- 최중호(1984), 「고성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모음을 중심으로-」, 석사논문(경남대).
- 한영목(1999), 『충남방언의 연구와 자료』, 이회문화사.
- 허 옹(1986), 『국어음운학』, 샘문화사.
- _____ (1958), 『국어음운론』, 정음사.
- 황대화(1998), 『조선어 동서방언 비교연구』, 한국문화사.
- 현평효(1963), 「제주도방언 ‘·’음 시고」, 『무애 양주동 박사 화탄 기념 논문집』, 탐구당.
- _____ (1982), 「제주도방언개관」, 『제주도지』 하. 제주도청.
- _____ (1985), 『제주도 방언연구 논고편』, 이우출판사.
- _____ (1985), 『제주도 방언연구 자료편』, 태학사.
- _____ (1987), 「제주도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도연구』 4. 제주도연구회.
- 하야육량(1945), 『조선방언학시고 -‘缺’어고』, 경성:동부서적.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 『한국방언자료집 - 전라북도편』.
- _____ (1987), 『한국방언자료집 - 충청북도편』.
- _____ (1990), 『한국방언자료집 - 충청남도편』.
- _____ (1991), 『한국방언자료집 - 전라남도편』.
- _____ (1997), 『17세기 국어사전』, 태학사.
- 한글학회(1995), 『국어학사전』.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국어교육	학 번	20111032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이 지 은 한문: 李 智 恩 영문: Lee. Ji - Eun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한국·아파트 102동 1701호				
연락처	062-682-0929		E-MAIL: writer0120@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의 소실과 방언 분화 영문 : The Dephonologization of ‘·’ and The Differentiation of Korean Dialect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4 년 1 월 12 일

저작자: 이 지 은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